



뽀롱뽀롱 뽀로로가 알려주는 키즈페인트

유해중금속으로 부터 안전한 어린이 공간 전용페인트, 이제 아이들의 꿈과 창의력이 커져갑니다.

항균력
99.9%



노루페인트 '뽀로로 키즈페인트'는 어린이 공간에 맞도록 만들어진 안전한 감성칼라 페인트로서 컬러테라피를 감안한 컬러 선정으로 아이들의 신체 성장과 감수성 발달의 효과가 있습니다. 꿈과 창의성을 키워나가는 아이들만의 공간을 만들어 주세요.

NOROO

2010 SPRING

NOROO그룹사보 | 2010년 봄 15호

푸르른 새싹이 돋았습니다.
봄은 새싹을 나무로 키우려나 봅니다.
여러분의 행복도, 희망도, 사랑도
함께 키워나갔음 합니다.



NOROO



제 책상위의 친구를 소개합니다



하루에 적어도 4번은 만나는 저와 3년 넘게 동거 동락하는 친구입니다. 모닝커피로 시작하여 중간 중간 갈증을 해소해 주기도 하고 비타민이 듬뿍 담긴 주스로 저를 up시켜 주기도 합니다. 예쁘고 화려하고 아이디어 참신한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저는 이 녀석이 참으로 든든합니다. 이 친구가 왜 든든하고 대단한지 들어보실래요!

- ▶ 일회용 종이컵이 썩는데 20년이 걸린다.
- ▶ 1초마다 축구장만한 숲이 사라진다.
- ▶ 작년에만 일회용 종이컵 생산을 위해 358억 원의 천연펄프가 수입됐다.
- ▶ 우리나라에서 종이컵은 하루 6,000만개 이상 만들어지고 버려진다.
- ▶ 일회용 종이컵 대신 자기 컵을 쓰면 연간 358억 원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이 정도만으로도 제가 이 친구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시겠죠?

저의 경우를 계산해 보면 (월 평균 근무일 20일 X 평균 사용 종이컵 4개 X 12개월 = 960개) 960개라는 어마어마한 개수의 종이컵을 이 친구가 아니었다면 사용할 뻔 했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종이컵은 얼마나 될까요? 계산해보세요.

지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건강까지 생각한다면 개인컵 사용이 좋아요. 일회용 종이컵은 펄프로 만든 내부를 LDPE라는 일종의 플라스틱으로 코팅 처리를 합니다. 하지만 뜨거운 음료를 부으면 코팅된 비닐이 녹아 환경호르몬이 발생하여 정신이상, 우울증, 간, 신경계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늘 가방에 개인컵을 가지고 다니며 사용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직장에서도 든든한 컵 친구를 사용해 보세요.

NOROO

NOROO그룹사보 | 2010년 봄 15호
C O N T E N T S

NOROO, 생각을 담다

- 04 **NEWS**
NOROO그룹 계열사 소식
- 10 **NEW VISION_2010**
2010 녹색경영! 출발점에 서다
- 14 **IN PEOPLE**
최강의 팀워크로 일군 (주)노루페인트 수지생산2팀
- 18 **HAPPY PARTNER**
(주)노루페인트 강릉 특약점
- 22 **NOROO+현장속으로**
건축사업부 세미나 개최
- 24 **HOT FOCUS**
(주)노루페인트, 어린이용 "뽀로로페인트" 출시

NOROO, 사랑을 담다

- 26 **HAPPY+FAMILY**
(주)DAC 조규용 대리,
초보부부 평생의 사랑과 행복위해
- 28 **인물열전**
그 깊고 그윽한 골짜기에 마음 한 자락 두고 오다
- 32 **우리끼리+Talk, Talk**
멘토링에 대하여 이야기하다!
- 34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스마트폰, 그것이 알고싶다
- 38 **N-POST**
중국에서 날아온 편지

NOROO, 행복을 담다

- 40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버려진 것들이 예술로 피어나는 곳
- 44 **건강만만세**
다리뿐만 부지런히 팔아도 무병장수한다
- 46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 47 **PHOTO CONTEST**

발행일 | 2010년 4월 15일 발행처 | NOROO그룹 발행인 | 최광균 기획 | (주)노루홀딩스 (02-2191-7731)
편집 및 디자인 | (주)IR큐더스 (02-6011-2000) 인쇄 | 영은문화

NOROO 그룹 사보 담당자 | (주)노루홀딩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36-1 Capital Tower 10층 전략기획팀 장연연 주임 T:02-2191-7753 |
(주)노루페인트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615 전략경영기획팀 지남철 대리 T:031-467-6128 | (주)아이피케이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1422-8
국민연금 부산회관 17층 전략마케팅팀 정유진 사원 T:051-580-6183 | (주)DAC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금의리 579번지 전략기획팀 백현정 사원
T:031-8059-9502 | (주)노루케미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82-5 경영지원팀 최홍규 과장 T:031-599-7252 | (주)대한비케이칼(주) 충청남도
천안시 백석동 527-6 경영지원팀 이수용 대리 T:041-620-6207 | (주)노루코일코팅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615 지원팀 박서진 대리
T:031-467-6486 | (주)노루로지넷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615 총괄지원팀 전희경 대리 T:031-467-6363 | 칼라메이트(주)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15-9 업무총괄팀 박미숙 사원 T:031-467-6379 |

N O R O O N E W S

㈜노루홀딩스로 회사명 변경

NOROO그룹의 지주회사인 ㈜디피아이홀딩스(DPI Holdings Co., Ltd.)는 제 2의 창업도약을 위하여 현재 추진 중인 그룹 CI 통합 작업의 일환으로, 2010년 3월 19일 제 64기 정기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아래와 같이 [㈜노루홀딩스(NOROO Holdings Co., Ltd.)]로 사명이 공식적으로 변경되었다.

글로벌 CI Brand “NOROO”의 도입과 함께 ㈜노루홀딩스는 상호 보완적인 전략적 해외 합작, 협력 사업모델을 끊임없이 추구하여 해외 파트너와의 긴밀한 공조와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DPI Holdings CO., Ltd. Changing the Company Name to NOROO Holdings Co., Ltd.

DPI Holdings Co., Ltd., the holding company of the NOROO Group, has decided to change the company name to NOROO Holdings Co., Ltd. as a part of integration of the Group's CI under the NOROO title to make a second leap. Through the 64th shareholders' meeting on March 19 2010, DPI Holdings Co., Ltd. has changed its name to NOROO Holdings Co., Ltd. Under the new CI and company name, NOROO Holdings Co., Ltd. pursues the business model of strategic overseas collaboration, opening and developing a brighter future along with the global partners.

㈜노루홀딩스 제64기 주주총회 개최

㈜노루홀딩스는 지난 3월 19일, 제64기 정기주주총회를 안양본사 NOROO 복지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노루홀딩스의 주주 및 회사 임직원들이 참석하였다. 의장인 ㈜노루홀딩스 최광균 부회장은 회사의 영업성과 및 재무현황 등 핵심 안건들을 주주들에게 자세히 설명하였다. 최광균 부회장은 2009년 우리 회사가 연초의 어려운 경영환경을 극



복하기 위하여 창업주의 도전 정신을 되새기고,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력한 결과, 2009년 영업이익 100억 원, 당기순이익 87억 원을 달성하였으며, “2010년에는 ‘상상력과 창의력으로 변화를 리드하자’라는 경영지표를 세우고 글로벌기업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미래를 향해 전진해 나아가고자 한다”고 했다.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2009사업 년도의 회사 성과에 대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의 승인을 받았으며,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안)에서 주당 200원씩(보통주), 305원씩(우선주) 배당이 승인되었다.

한편, 이날 주총에서 임기만료였던 최광균 이사 및 최광주 사외이사는 중임되었고 신임이사로 이주길 이사가 선임되었으며 임기만료였던 이승문 감사는 중임되었다.

NOROO Holdings Co., Ltd. Holding the 64th Shareholders' Meeting

On last March 19, NOROO Holdings Co., Ltd. held the 64th shareholders' meeting in the NOROO welfare center of Anyang main office.

On this day, the shareholders and employees of NOROO Holdings Co., Ltd. participated in the event. Choi, Kwang-kyun, a vice chairman of NOROO Holdings Co., Ltd., reported the company's key agendas such as business performance and financial status from the last year. Choi, Kwang-kyun commented, “the year 2009

began as a challenging year. But our employees reminded challenging spirit of our founder and put every effort to overcome threats. As a result, we've recorded operating profit of KRW 10 billion and net profit of KRW 8.7 billion in 2009. For 2010, we will set management index of “lead the changes through imagination and creativity” to become a global company, making a bold step towards a brighter future.”

In this meeting, our shareholders approved the balance sheet and income statements from the last year as well as dividends of KRW 200(common stock) and KRW 305(preferred stock) for the statement of retained earnings. In addition, Choi, Kwang-kyun, a director, and Choi, Kwang-ju, an outside director, have been reappointed and Lee, Ju-kil has been newly appointed as a director while Lee, Seung-mun, an audit committee member, has been reappointed.

NOROO그룹 협업포털 시스템 구축

NOROO그룹은 전자 협업 지원 및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로 업무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협업포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현재 ㈜노루홀딩스와 ㈜노루페인트가 사용하고 있는 다윈 포털을 업그레이드하고 이를 계열사로 전파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협업포털 구성은 크게 엔터프라이즈 포털과 협업포털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성된다. 엔터프라이즈 포털은 그룹 통합 포털과 각 계열사에 따른 포털사이트로 구성되고, 협업포털은 각 사업부, 팀, 프로젝트, 커뮤니티별 협업공간을 만들어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할 예정이다.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MS의 MOSS (Microsoft Office Sharepoint Server) 포털 프레임워크를 통해 템플릿기반으로 각각의 사이트를 구성한다. 구성된 사이트들은 제공되는 웹파트들을 선택하여 기본 구성하고 외부시스

템 연동이나 별도의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한 부분들은 해당 개발작업을 통해 추가 구축할 예정이다. 구축기간은 3월1~7월15일까지 예상된다.

NOROO Group Opening a Cooperation Portal System

NOROO Group is currently establishing a cooperation portal system to improve cooperation and communication among the companies, a step necessary to improve job productivity. The task upgrades and installs "the Portal System" that is currently being used by NOROO Holdings Co., Ltd. and NOROO Paint&Coatings Co., Ltd. The cooperation portal system will be comprised of an enterprise portal and a cooperation portal. The enterprise portal will consist of a group integrated portal and portal sites for each affiliates. The cooperation portal will consist of a variety of sites for each division, team, project and community. To create a system, a portal framework through MOSS (Microsoft Office Sharepoint Server) will be used to create a template for each site. Then, the sites are categorized into different web parts and additional customization and networking with external sites will be carried out as needed. The system is estimated to be constructed between March 15 and July 15.

(주)노루페인트

NOROO PAINT&COATINGS CO., LTD.

(주)노루페인트 제4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지난 3월 19일, (주)노루페인트는 안양 본사 NOROO



복지관에서 제4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주)노루페인트의 주주 및 회사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장인 (주)노루페인트 김수경 사장은 회사의 영업성과 및 재무현황 등의 핵심 안건을 발표하였다.

김수경 사장은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2009년 (주)노루페인트 경영실적은 매출액 2,563억 원, 영업이익 103억 원을 달성하였으며 2010년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어려운 한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영목표 달성은 물론 2009년의 위기를 극복한 도전정신과 오랜 NOROO그룹의 경륜을 바탕으로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전략적인 경영활동 전개할 것이다." 또한, 녹색경영선포의 원년이기도 한 2010년은 수익성확보와 글로벌 전략을 기반으로 내외적으로 보다 건실한 경영구조를 이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주주총회에서 2009사업 년도의 회사 성과에 대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의 안건은 만장일치로 승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배당은 보통주당 100원씩(시가배당률 4.2%), 우선주당 105원씩(시가배당률 6.2%)으로 승인을 되었다.

NOROO Paint&Coatings Co., Ltd. Holding the 4th Shareholders' Meeting

On last March 19, NOROO Paint&Coatings Co., Ltd. held the 4th shareholders' meeting in the NOROO welfare center of Anyang main office. On this day, the shareholders and employees of

NOROO Paint&Coatings Co., Ltd. participated in the event. Kim, Su-gyeong, a president of the company, reported the company's key agendas such as business performance and financial status from the last year. Kim, Su-gyeong commented that NOROO Paint&Coatings Co., Ltd., despite extremely tough business condition from the global economic crisis, has recorded sales of KRW 256.3 billion and operating profit of KRW 10.3 billion. He expects that the year 2010 will continue to be a tough year, but asked each employee to remind NOROO's challenging spirits and experiences from 2009 to overcome any threats ahead of the company. Finally, he commented that the year 2010 is also the year of declaration of Green Management, and NOROO Paint&Coatings Co., Ltd. will reinforce internal capabilities by recording higher profitability and through the globalization strategies. In this meeting, our shareholders, as a whole, approved the balance sheet and income statements from the last year as well as dividends of KRW 100[common stock, dividend rate 4.2%] and KRW 105[preferred stock, dividend rate 6.2%].

노동조합 연중사업 이룸공모 당선작발표



증정하였다.

(주)노루페인트 노동조합에서 실시한 2010년도 연중사업 이룸공모전에서 선정결과를 발표하였다. 지난 1월 13일, 표창장 시상을 하였으며 참가자 전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NOROO NEWS

-최우수상 : 연구소 건축도료연구실 바닥재기술팀
(안치용 대리)

ICE! Break 2010 :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내어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가기 위해...

I : Imagination(상상력과)

C : Creativity(창의력으로)

E : Energize(열정적으로 임하여 변화를 이끌어 나가자)

-우수상 : 제조본부 안양공장 수지생산1팀

(이원경 대리) 고정관념을 타파하자

-우수상 : 관리본부 지원부문 설비보전팀

(김종택 과장) 변화하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Labor Union Announcing the Prize-winning Name for the Business in 2010

The labor union of NOROO Paint&Coatings Co., Ltd., on last January 13, announced the prize-winning name for the business in 2010, awarding certificate and giving out gifts to all participants.

- The Grand Prize : Flooring Technology Team, Architecture Paint Laboratory, Research Institute (An, Chi-yong, an assistant manager)

ICE! Break 2010 : Find a new growth driver for the continuous growth of the company

I : Imagination(with imagination)

C : Creativity(and with creativity)

E : Energize(Be energetic to lead changes)

-The Best Prize : 1st Resin Production Team, Production HQ, Anyang Plant (Lee Won-Gyeong, an assistant manager) **Break the stereotype**

-The Best Prize : Equipment Preservation Team, Supportive Part, Management HQ (Kim, Jong-taek, a manager) **Only the person that continually seeks changes will survive**

㈜노루페인트 노동조합 김용목 위원장 특강



㈜노루페인트 노동조합 김용목 위원장이 노사가 함께 만들어 가는 노사문화를 주제로 지난 1월 3일, 쌍용자동차 전 임직원 4천명, 포스코 중역을 포함 600여명에 이르는 협력업체 사장과 ㈜노루페인트 주거래선인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하였다.

㈜노루페인트 노사가 만들어가는 상생의 신노사문화가 우리나라 산업현장에 귀감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앞으로도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우리의 소중한 자산으로 자리하고 있는 노사문화를 더욱 발전시켜나갈 것을 김용목 위원장은 다짐했다.

Special Lecture by Kim, Yong-mok, a Chairman of the Labor Union

On last January 3, Kim, Yong-mok, a chairman of the labor union of NOROO Paint&Coatings Co., Ltd. has given a special lecture to 4,000 employees from SSANGYONG Motor, 600 presidents from subcontractors and directors from

POSCO as well as Hwaseong plant of KIA Motors, which is the main customer of NOROO Paint&Coatings Co., Ltd. On this day Kim, Yong-mok stated that NOROO's labor relationship is one of best in the industry, pledging that he will not stop here but further improve the labor culture in the future.

㈜노루페인트, 태국 국제노동협력원 방문



노사발전재단 부설기관인 국제노동협력원에서 ㈜노루페인트의 모범적인 노사문화 발전을 견학하고자 태국 노동부, 노동조합 및 경총 간부들이 지난 2월 25일, 안양공장에 직접 방문했다. ㈜노루페인트 노동조합 김용목 위원장으로부터 노사관계 관련한 운영 사례 설명을 들은 후 사료전시실 및 공장견학을 하였다.

이번 태국 국제노동협력의 방문으로 ㈜노루페인트의 상생의 신노사문화를 해외까지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회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NOROO Paint&Coatings Co., Ltd. Visiting Thailand International Labour Foundation

On last February 25, International Labour Foundation, an affiliated organization of Labor Foundation, as well as Thailand Ministry of Labor, Thailand labor union and directors of Thailand Employers Federation have visited

Anyang plant of NOROO Paint&Coatings Co., Ltd. to study exemplary labor culture of the company. Kim Yong-mok, a chairman of the labor union, explained the company's labor relationship, followed by a tour to exhibit halls and plants. This visit was a great opportunity to announce the company's labor culture to the world, heightening the company's brand value.

2010년 무재해 기원제 및 시산제 실시



지난 3월 6일, 포근한 날씨 속에 안양 수리산에서 무재해 기원제 및 시산제를 실시하였다. 이날 행사는 (주)노루페인트 임직원외 (주)노루홀딩스 및 계열사도 참여하였으며, 수리산 환경 정화활동 및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를 함께 진행하였다. 안전을 기원하는 결의문 낭독과 녹색경영방침 선서로 올 한해 무재해를 다짐하였으며 2010년 NOROO 지표인 상상력과 창의력으로 변화를 리드하자는 각오를 다졌다.

Carrying Out the Wishing & Opening Ceremony for No Disaster in 2010

On last march 6, NOROO Paint&Coatings Co., Ltd., in warm weather, carried out the wishing & opening ceremony for no disaster in Mt. Suri. Employees from NOROO Paint&Coatings Co., Ltd., NOROO Holdings Co., Ltd. and other affiliates participated in the event, while cleaning up

Mt. Suri and feeding wild animals at the same time. The ceremony is held on annual basis, and each employee read resolution and wished for no disaster in 2010, which is also the year of declaration of Green Management. The employees pledged that they will lead changes with imagination and creativity.

(주)노루페인트, 제1회 속도방수대회 개최

지난 3월 23일, (주)노루페인트 안양공장에서 전직원의 화재 초기 대응 능력 향상 및 함께하는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제1회 "속도방수대회"를 개최하였다. 대회 방법은 3인1조가 되어 옥외소화전 호스 전개, 방수 후 정리까지의 시간을 측정하여 최단시간에 끝내는 조가 우승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우승에는 해외사업팀이 1등으로 상금을 수상하였다.

우승팀

- 1등 : 해외사업팀(이상현, 서평원, 문수영) : 40만원
- 2등 : 도료1팀(김완구, 김대규, 김용연) : 30만원
- 3등 : 자보생산팀(김기태, 박병구, 김영태) : 20만원

장려상 3팀

- 도료1팀(서순주, 최종일, 박 철)
- 설비보전(김현모, 김진권, 김후태)
- 자보생산팀(전인성, 정재훈, 이승규)

특별상

- 회계+자금(강희본, 문승진, 백승운)
- 구매팀(강봉원, 신상철, 유상민)
- 건축마케팅(이창훈, 이정오, 최주안)
- 수지1팀(김진상, 김민정, 이원경)

NOROO Paint&Coatings Co., Ltd. Holding the 1st Speed Fire Extinguishing Competition

On last March 23, the Anyang Plant of NOROO Paint&Coatings Co., Ltd. held the 1st Speed Fire Extinguishing competition, in which every employee participated to improve the ability to



react swiftly in case of fire. In this competition, 3 employees formed a single team, measuring the time required to start outdoor fire extinguisher hoses then finally put out fire. The grand prize was given to Overseas Business Team.

The Winning Team

- 1st Prize : Overseas Business Team
- 2nd Prize : 1st Paint Team
- 3rd Prize : Car Repair Paint Production Team

Participation Prize (3 Teams)

- 1st Paint Team
- Equipment Preservation
- Car Repair Paint Production Team

Special Prize

- Accounting + Treasury
- Purchase Team
- Architecture Marketing Team
- 1st Resin Team

N O R O O N E W S

칠서공장 봉사활동 실시



칠서공장의 사회 봉사 활동 동호회인 '노루봉사대'에서 지난 3월 27일, "농촌마을 대문 칠해주기"를 실시하였다. (주)노루페인트 회원의 자녀 2명을 포함하여 총 임직원 17명이 활동에 참여하여 칠서면 유계마을 지역에 12개 대문을 도장하였다. 낡은 대문이 새롭게 단장된 모습을 본 마을 주민이 (주)노루페인트 봉사대에게 정말 감사를 드린다고 고마움을 전하였다.

Chilseo Plant Carrying Out Volunteering

On last March 27, the 'NOROO Volunteers', a volunteer work club in Chilseo Plant, extended helping hand to paint the "gates of farm villages". A total of 17 employees, including 2 children of employee from NOROO Paint&Coatings Co., Ltd., participated in the event, painting 12 gates of Yugae village in Chilseo-myeon. The villagers thanked every member of NOROO Volunteers for decorating the old gates.

12년 연속 무교섭 임금교섭 타결

(주)노루페인트는 노동조합과 지난 3월 31일, 임금 인상 협상을 12년 연속 무교섭으로 타결했다. (주)노루페인트 노사는 그 동안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연초에 세웠던 사업계획을 달성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목표달성을 위해 생산성향상과 원가절감을 위한 노력을 전제로 금년 임금을 기본급 4% 인상



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이는 지난 2월부터 상집위원회의, 대의원회의, 그리고 칠서, 포승 지방공장 등을 위시한 조합원 설명회를 통한 여론수렴과 공감대 형성과정을 거쳐 조합원들의 신뢰와 성원을 이끌어내어 "12년 연속 무교섭 임금교섭 타결"이라는 금자탑을 쌓게된 것이다. 아울러 (주)노루페인트 노동조합은 금년부터 그동안 고용안정을 위한 큰 과제였던 직무급제 도입도 6개월여에 걸친 인사 TFT활동과 노사합의를 통해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는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노사간의 노력의 결정체이자 16년여간 시행해 오던 신인사제도의 동일직급 동일급여 원칙을 노조 스스로 깨는 결단으로 조합원들의 믿음을 잃지는 불가능한 것이다.

(주)노루페인트 김용목 위원장은 노조를 믿고 따라준 조합원들에게 한없는 고마움과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고용안정을 통해 우리 노루가족의 행복을 지켜 내는 것으로 반드시 보답하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Settlement on Wages for 12 Consecutive Years with No Negotiation

On last March 31, the labor union of NOROO Paint&Coatings Co., Ltd. has come to a settlement on wages for 12 consecutive years with no negotiation. Based on the years of trust, the members of labor union fortified their determination to reach the business goal through high-

er productivity and cost reduction, agreeing to a 4% increase in wages for 2010.

The members of labor union, through multiple conferences of committees & representatives and briefing sessions in Chilseo & Poseung plants, have collected opinions and formed a consensus on wages, making possible the legacy of "settlement on wages for 12 consecutive years with no negotiation". Furthermore, the labor union of NOROO Paint&Coatings Co., Ltd., in an effort to stabilize job security, has decided to introduce a performance pay system after 6 months of personnel TFT activities and through an agreement between managements and the union. The decision breaks the same wage for same position rule of the company, which has been ongoing for 16 years.

Kim, Yong-mok, a chairperson of the labor union of NOROO Paint&Coatings Co., Ltd., thanked the members of the union for their continuous trust saying, "I will repay the trust and ensure your happiness through job security for all members of NOROO family."

(주)노루코일코팅 NOROO Coil Coatings Co., Ltd.

포항 산악회, 제주 한라산 등반

(주)노루코일코팅 포항산악회가 지난 2010년 2월 27일~3월 1일, 제주도 한라산을 등반하였다. 왕복 19.2km로 만만치가 않은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평소의 체력단련과 단단한 팀워크를 통해 17명의 참가자 한명의 낙오자도 없이 모두 완주하였다.

Pohang Mountain Club Climbing Mt. Halla from Jeju

Pohang Mountain Club, a representative mountain club in the NOROO Group, has climbed Mt. Halla from Jeju between February 27 and March 1 of 2010. The total round-trip was 19.2km in length, certainly not an easy climb, but there were no dropouts. All 17 participants completed climbing through regular training and a strong teamwork.

㈜노루케미칼 NOROO Chemicals Co., Ltd.

新용기 출시



사명을 변경한 ㈜노루케미칼은 새로운 용기를 출시하였다. 2010년 녹색경영을 선포한 NOROO그룹의 일원으로써 친환경 이미지를 내세운 디자인으로 출시 후 곧바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새로운 용기의 출시는 ㈜노루케미칼의 브랜드 가치 향상의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Releasing a New Container

NOROO Chemicals Co., Ltd., under its new name, has released a completely new contain-

er. Under the declaration of Green Management of 2010, the company has designed a container with environment-friendly image, quickly gaining popularity in the market. The release of new container is expected to heighten the brand value of NOROO Chemicals Co., Ltd.

㈜아이피케이 International Paint (Korea) Co., Ltd.

납세자의 날 석탑산업훈장 수상



지난 3월 3일, 제44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서울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아이피케이는 모범납세자로 선정되어 석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특히,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제품개발로 도료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성실한 납세로 국가재정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 받았다. 한편 강오수 사장은 ㈜아이피케이가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연초부터 투명경영기업을 상징하는 모범납세자 석탑산업훈장을 받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해 국가재정 및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건전한 기업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겠다는 수상소감을 밝혔다.

Receiving the Tower of Industry Medal on the Taxpayers' Day

On last March 3, International Paint (Korea) Co., Ltd., on the 44th Taxpayers' Day, received the Tower of Industry Medal as an exemplary taxpayer in the convention center of KOEX, Seoul. The company has been highly recognized for its never-ending efforts to develop new products and for the contributions made towards the advancement of painting technology. At the same time, International Paint (Korea) Co., Ltd. has been an honest taxpayer, contributing to national finance as well as developments in local areas. Kang, Oh-su, the president of International Paint (Korea) Co., Ltd., commented that he is proud to receive the Tower of Industry Medal, an award given to transparent companies, on the 30th anniversary of foundation. He promised that the company will further contribute to national finance and local society.

녹색경영!

출발점에 서다 Green Management! A Net Starting Point!

2010년도는 녹색경영선포의 원년으로 녹색경영을 통한 지속가능성장의 기반을 구축하는 해이기도 하다. 따라서, 녹색경영위원회에서는 3대 전략을 세부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Green Leadership은 Green Regulation 측면에서, Green Marketing은 'Green Product' 측면에서, Green Value Chain은 'Green Process' 측면으로 “녹색경영을 추진하기 위한 표준을 구축하는 해”로 정하고 활동의 중점을 두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대표되는 환경위기와 자원위기가 인류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현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 경제 전반에 걸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NOROO그룹은 창립 65주년을 맞이하여 이러한 사회, 경제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고 지속 가능한 내적 성장을 위하여 녹색경영을 선포하였다. NOROO그룹이 지향하는 녹색경영은 크게 세 가지의 중점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건실한 지속성장을 전제로 에너지·자원 사용량을 최소화하는 것이며, 둘째는 에너지·자원을 사용하되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오염 최소화하는 것이며, 셋째는 녹색기술개발을 통한 녹색 친환경 제품을 개발하여 신성장 동력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NOROO그룹의 녹색경영은 세 가지 중점요소의 구체적 전개를 위한 3대 전략과 9대 방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ISO 140001을 중심으로 하는 친환경 시스템의 확대와 Value Up & Waste Down을 추구하는 Lean Six Sigma 혁신활동을 녹색경영 실천 활동의 기본축으로 구성하고 있다.

3대 전략은 Green Leadership, Green Marketing, Green Value Chain으로 구성되어 있다. Green Leadership은 NOROO그룹의 녹색경영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환경위기극복에 기여함으로써 녹색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녹색성장기업으로서의 리더십 확보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여기에는 녹색경영이념 및 방침의 제정, 녹색경영정보의 공개, 온실가스 대응 및 감축의 세 가지 방침으로 구성되어 있다.

Green Marketing은 녹색기술개발과 시장확대를 통한 지속가능성 성장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기업이 녹색성장의 실질적 책임의 주체가 되어야함을 실현해 가는 것이다. 녹색기술개발은 제품생산에 사용되는 원료의 친환경화를 위하여 국내외적 제반 규제사항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통하여 친환경 신제품 개발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국내의 신시장 개척 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략의 핵심인 해외시장 확대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Green Marketing 전략은 고객과의 Green Communcation, 친환경 제품개발, 녹색성장을 위한 신시장 개척의 3가지 핵심방침으로 구성되어 있다.


Green Value Chain 전략은 우리가 생산하는 제품의 Value Stream 상에서 녹색경영을 구현하는 것으로 원료의 구매에서부터 제품의 생산 출하단계까지의 전 프로세스에서 녹색경영의 개념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즉, 사용원료에 대한 친환경화로의 대체 및 유도, 작업환경개선을 통한 제조현장의 Green Factory화, 제조에 투입되는 제반 에너지자원의 최소화가 근간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전략의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침은 그린 파트너십 구축, 친환경 사업장 구축, 에너지 절감 등이다.

NOROO그룹은 이와 같은 3대 전략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각 사의 담당임원 및 담당 팀장을 중심으로 녹색경영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기적인 회의와 협의를 통하여 세부적인 실천사항을 기획하고 점검해 나가고 있다.

Green Product : 제품의 녹색 친환경화를 위하여 ‘친환경 신제품 개발 및 저탄소 녹색 시장 제품 개발’을 목표로 연도별로 친환경 제품의 매출 구성비를 점차 확대할 예정이며, 그 첫번째 단계로 친환경 제품의 기준을 재정립하고, 제품별 친환경성 평가를 실시하며, 환경유해 제품을 점차적으로 친환경적으로 개량, 개선토록 유도함으로써, 친환경제품 비율을 증대해 나가는 것이다.

Green Process : 제품 생산과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생산을 실시함으로써 CO₂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생산 공정의 에너지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정보화하며, 제품별 생산 시 발생하는 CO₂양을 산정하고 구체적 개선방안을 실행하는 것이다. 즉, 파악된 에너지 사용량을 기준으로 에너지 다소비 설비의 개선, 공정 개선 등을 실시하여 제품 단위당 에너지 사용비용을 줄여가는 것이다.

Green Regulation : 녹색경영과 관련된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회사 경영에 즉시 반영되도록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경쟁사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녹색시장의 선두주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관련부서 및 이해 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구축하고, 국제적인 시장변화사항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내부커뮤니케이션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녹색경영 Site를 구축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In response to the new paradigm shift, the NOROO Group, in celebration of 65th anniversary, declared the Green Management to prepare new strategies and to reinforce internal capabilities for a continuous growth in the future.

The Green Management by NOROO is composed of 3 key points, which are 1) minimize the use of energies & resources while pursuing continuous growth, 2) use energies & resources but minimize environmental pollutions by reducing the emission of greenhouse gas, 3) produce environment-friendly green products through the development of green technologies, thus laying a foundation for the development of new growth driver.

In an effort to practice these key points, the NOROO Group has organized Green Management into 3 strategies and 9 policies. In addition, NOROO is enlarging the application of ISO 140001 and is actively carrying out an innovative activity titled Lean Six Sigma, pursuing the idea of "Value Up & Waste Down". The 3 strategies include Green Leadership, Green Marketing and Green Value Chain.

The Green Leadership publically announces NOROO's efforts for the green movement, heightening the Group's image as a green company while focusing the Group's leadership under the green movement. The Green Leadership consists of 3 policies, which are philosophy of Green Management & the enactment of policies, disclosures of Green Management information and reduction of greenhouse gas.

The Green Marketing lays a foundation for the continuous growth through the development of green technologies and pursuit of higher market share. The company becomes an agent of green growth, holding every responsibility. The development of green technologies responds to the requirements, both local and overseas, of using environment-friendly raw materials to develop green products. By doing so, NOROO can not only open a new market in Korea, but also expand market share in the overseas market, which is the key area of the Group's global strategies. Therefore, the strategies of Green Marketing consist of 3 core policies, which are Green Communication with customers, development of environment-friendly products and opening a new market for the green growth.

The strategies of Green Value Chain realize the concept of the Green Management within our products' value stream, including all production processes from the purchase to the shipment. The Green Value Chain consists of activities such as using more environment-friendly raw materials, realizing Green Factory through the improvement of job sites and minimizing energies required in the production. In pursuit of Green Value Chain, NOROO has

adopted key policies which are building a green partnership, establishing environment-friendly work-sites and minimizing energy usage.

In an effort to effectively execute 3 strategies of Green Leadership, Green Marketing and Green Value Chain, the NOROO Group has appointed the vice president as a chairperson of the committee of Green Management and has placed directors and team leaders from each company into the committee, holding meetings on a regular basis to plan and organize the Green Management movement.

The year 2010 is not only the year of the declaration of Green Management but also a year of laying a foundation for the continuous growth based on the Green Management. Therefore, the committee of Green Management, in an effort to pursue 3 strategies, has decided to practice Green Leadership under "Green Regulation", Green Marketing under "Green Product", and Green Value Chain under "Green Process". For the committee, this year will be "the year of development of Green Management standards".

Green Product : The Green Product "develops and produces environment-friendly products and low carbon products". We plan to gradually increase sales contributions from environment-friendly products on every year. As a first step, we will reestablish standards of environment-friendly products, evaluating the products' contribution to the environment and transforming harmful products into environment-friendly products.

Green Process : The Green Process minimizes the energy usage in the production and efficiently operates production line to reduce the emission of CO₂. We will measure the energies used in each step of our production and record data to calculate CO₂ emission, finally coming up with plans to improve overall process. In other words, the Green Process improves machines with high energy requirements to ultimately reduce energy costs per products.

Green Regulation : The Green Regulation efficiently collects Green Management information and immediately applies data into the system, giving us a competitive edge over our competitors and allowing us to be the leader in the green market. To do that, we plan to establish a communication channel within our teams and employees and set up information system to monitor changes in the global market. Finally, we will construct and operate a website for the Green Management to better organize communication within the NOROO Group.

최강의 팀워크로 일군 자동차 및 PMC용 수지 생산의 중심

(주)노루페인트 수지생산2팀

At the Center of Industrial Resin Production through the Best Teamwork

Team Interview-NOROO Paint&Coatings Co., Ltd. 2nd Resin Production Team



(주)노루페인트 수지생산2팀은 자동차 및 PCM용 수지를 생산하고 있는 수지의 중심 공장이다. 1997년 공장이 처음 설립된 이래 13년 동안 끊임없는 연구 개발로 설비의 자동화를 이뤘고 완벽한 생산 공정을 갖췄다. 동료는 동료에게, 선배는 후배에게 일과 인생의 멘토가 되어주는 수지생산2팀의 가장 큰 자산은 바로 팀워크. 공장 설립 초기부터 함께한 이들은 서로의 눈빛만으로 사정을 속속들이 알 정도로 최고의 팀워크를 자랑한다.

팀워크는 수지생산2팀의 생명

“수지생산2팀은 주야 2교대로 24시간 가동됩니다. 각 제품의 반응 공정이 저마다 다르고 시간이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어떤 공정은 8시간 안에 끝나지만 어떤 공정은 24시간 이상 진행됩니다. 이렇듯 긴 시간을 요하는 공정이 있기 때문에 공장이 쉴 없이 돌아가야 하죠. 팀원들은 12시간씩 회사에서 함께 합니다. 단순히 근무 시간이 같기 때문이 아니라 일 자체가 완벽한 팀워크를 바탕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팀워크는 생명과도 같습니다.”

홍기덕 파트장의 설명처럼 수지생산2팀의 공장 불빛은 1분 1초도 꺼지지 않는다. 1주일마다 낮 근무와 밤 근무의 자리가 바뀔 뿐 공장은 멈추지 않는다. 개인이 아닌 팀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공정의 완벽함을 위한 팀워크는 필수다. 다른 파트의 일과 공정의 업무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팀워크는 자연스레 돈독해질 수밖에 없다.

안경복 과장은 ‘융합과 상호책임’이라는 말로 수지생산2팀의 독특한 팀워크를 설명한다.

“다른 부서의 경우 개개인이 맡은 일이 따로 정해져있고 한 분야에서만 전문가가 되기 때문에 팀워크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수지생산2팀은 개개인보다는 팀 중심으로 업무가 돌아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팀 전체가 함께 일을맡는 것이죠. 두 개 파트로 나뉘어 있지만 두 팀이 함께 작업량을 조율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융합과 상호책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조금씩 희생하고 이해하는 것이 무척 자연스럽습니다.”

조석주 과장에게 수지생산2팀은 “정예 멤버가 모여 최선의 성과를 이뤄내는” 곳이다. “굳이 말이 필요 없습니다. 눈빛만 봐도 서로의 생각을 다 알죠. 12시간씩 같이 있다보면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되니까요. 업무 특성상 대부분 팀이 함께

움직이며 사소한 것 하나 놓치지 않고 점검하고 체크해야 하기 때문에 팀워크는 필수 요소입니다. 서로가 막중한 책임감으로 임하고 있죠. 팀워크와 책임감이 더해 최고의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신용호 대리 또한 수지생산2팀의 팀워크를 자랑한다. “다른 팀에 비해 인원이 적기때문에 단합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남자들만 있어서 딱딱할 것 같지만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선배님들은 말없이 후배들을 챙겨주시고 후배들은 선배님들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죠.”

모두가 멀티플레이어인 최강의 팀

수지생산2팀의 또 다른 특징이 있다면, 모든 구성원들이 낮밤으로 움직이는 업무 순환을 통해 어떤 공정이든 척척 해낸다는 것. 소수의 특별한 전문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팀원전체가 전 공정을 장악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다. 모두가 공장의 중심이고, 수지의 역사를 자신들이 써왔다는 자부심이 팀원들을 한데 묶는 역할을 하고있다.

곽종희 팀장에게 수지생산2팀은 첫 걸음을 함께 내딛고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견뎌낸 소중한 동료들이다. “1996년 프로젝트로 시작해 1997년 공장 완공과 함께 팀이 꾸려졌습니다. 팀원들은 모두 처음부터 함께 했던 이들입니다. 1998년 IMF로 힘들 때도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견디며 이겨냈죠. 지금 우리 팀은 수지의 중심 공장입니다. 자동차용 수지는 일반 건축용 수지와는 타입이 많이 달라요. 자동차용 수지는 라인 관리, 품질 관리가 더 강조되죠.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품질 안정화를 위한 활동과 개선 방안 등을 활발히 논의하고 있습니다.”

곽종희 팀장의 자랑처럼 수지생산2팀은 최첨단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공장 설계부터 자

동화를 중점으로 두었고, 지금은 각 공정이 자동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반응 온도 제어는 100% 자동화를 이뤘고 배합공정은 60~70% 정도 자동화에 이른다. 이는 어느 업계에서도 뒤지지 않는 수치다. 다른 공장에 비해 자동화율이 높은 것은 그만큼 공정의 정확성이 보장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광훈 대리는 “팀원 모두가 박지성”이라고 표현한다. “우리만의 특별한 팀워크가 있습니다. 수지 반응 공정들이 다 다른데, 그걸 누구든지 다 맡아서 할 수 있습니다. 팀원들은 그야말로 멀티플레이어들입니다. 모두가 다 박지성인 셈이죠. 다른 팀에 비해 팀원 전체가 전문성과 기술을 함께 갖추고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일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큼니다. 또한 선배들이 모두 팀의 멘토 역할을 합니다. 회사에 처음 들어와 제일 먼저 선배들에게 일을 배웁니다. 그렇게 해서 팀의 일원이 되는것이죠.”

모두가 모두에게 멘토가 되다

유종준 책임과장은 올해로 근무 36년차를 맞았다. 그야말로 수지생산2팀의 베테랑이자 전문가다. 그가 처음일을 시작하던 30여 년 전과 지금은 모든 것이 참 많이도 변했다. 때로 그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른것 같기도 하지만 회사의 체계와 방식이 대체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같아 흐뭇하다.

“수지생산2팀은 체계적으로 숙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모든 것이 원활하게 돌아가죠. 뭘 맡겨도 잘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된 것이 팀의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죠. 부서 내에서 서로의 일을 이해하고 협력해서 사고 없이 일을 마무리할 때 큰 보람을 느낍니다. 후배들에게 바라는 점이요? 더도 덜도 말고 지금 하는



것처럼만 잘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안경복 과장은 “팀원 모두가 멘토”라고 강조한다. “우리 팀의 일은 2, 3개월 가르쳐서 배울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최소 1년 이상은 붙잡고 배워야 해낼 수 있는 일이거든요. 후배들은 선배에게 배우고 선배는 후배를 가르칩니다. 누가 뭐랄 것 없이 그렇게 서로 배우고 가르침을 받죠.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멘토, 멘티가 될 수 있습니다.” 최동선 책임대리는 ‘열린 노하우’라는 말로 팀의 멘토 제도를 설명한다. “1년에 한 번씩 2개조로 편성되어 일하기 때문에 팀워크는 어느 부서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또한 업무를 통해 서로가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일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노하우를 감추지만 우리 팀은 아무리 사소한 지식이라도 다 열어두고 나눕니다. 이기적인 노하우가 아니라 모두에게 열린 노하우인 셈이죠.”

팀의 막내인 김남승 사원은 이제 파릇파릇한 2년 차다. 도로부에서 수지생산2팀으로 건너온 그에게 선배들은 보이지 않는 든든한 버팀목이다. “10년 만에 수지생산2팀에 들어온 막내여서 그런지 선배님들이 무척 잘 챙겨주십니다. 지금 맡은 일은 처음이라 모르는 것도 많고 실수도 많은데 선배님들이 많이 가르쳐주고 이것저것 알려주십니다. 신경 안 쓰는 듯 하면서도 선배님들은 다 보고 계시더라고요. 뒤에 베테랑 선배님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참 든든합니다. 작업 시작해서 순조롭게 마무리 지을 때 참 뿌듯해요.”

근무 36년차인 대 선배부터 2년차 막내까지 한 몸처럼 함께 호흡하는 수지생산2팀. 9명의 전문가들은 오늘도 최고의 팀워크로 완벽한 품질을

위해 힘차게 달려가고 있다.

The 2nd Resin Production Team of NOROO Paint&Coatings Co., Ltd. is at the center of resin production for automobiles, PCMs. Established in 1997, the team has perfected production lines through 13 years of continuous R&D research for the automation of equipments. The best weapon of the 2nd Resin Production Team is the teamwork between co-workers including a mentoring relationship between co-workers. Being together since the establishment, the workers of the team understand each other with just one look in eyes.

Teamwork, the Soul of the 2nd Resin Production Team

“The 2nd Resin Production Team is operated on two-shift, working 24 hours a day. This is because each process has different run time. For example, some process runs within 8 hours, while others take as long as 24 hours. Because of such time consuming processes, the plant must run continuously. Therefore, we are operated on two-shift, 12 hours each. Our work requires a perfect teamwork, so you can say that the teamwork is the soul of the team.”

As explained by Hong, Gi-dug, a part leader, the 2nd Resin Production Team operates in every second. The team members change their operation time and job site every week, but the plant never stops. The production process is operated by 2 parts within the team, so the teamwork is essential for smooth production. The members of each part have a

close relationship with others as they must understand responsibility and job of other co-workers.

An, Gyeong-bok, a manager, explains a very unique teamwork of the team as ‘integration and shared responsibility’.

“For other teams, each individual has responsibility, so he or she becomes an expert in one area, possibly weakening teamwork. However, the 2nd Resin Production Team is operated by the team. There are two parts within the team, but they work together as one, tuning works and resolving tasks together. Therefore, the teamwork can be described as integration and shared responsibility. It is natural here to sacrifice oneself for others.”

For Jo, Seok-joo, a manager, the 2nd Resin Production Team is where “the best members work together for the best performance”.

“We don’t have to explain to each other. Just one look in eyes, and we understand what each other wants. We work together for 12 hours, so we are even closer to each other than our family. The teamwork is necessity because the team is operated as one, inspecting and checking even smallest things. We carry a tremendous amount of responsibility, creating a best synergy effect between teamwork and responsibility.”

Shin, Yong-ho, an assistant manager, is also proud of the 2nd Resin Production Team.

“We don’t have many people here, so we must work together. You may think that the team atmosphere may be boring as we have only male members, but we take care of and trust each other.”



언제나 공부하는
자세인 그는,
우리팀의 에디슨
최동선 책임 대리

이 시대의
진정한
로맨티스트
조석주 과장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하는 해결사
유종준 과장

최강의 체력으로
일하는 에너지이저
김남승 사원

팀내의
등대같은 환한 빛
곽종희 부장

Best Team with Multi-Players

Another characteristic of the 2nd Resin Production Team is that every single member is a multi-player. Each member, through two-shift operation, becomes expert in all processes. They are the center of operation, being proud that they are behind the history of resin production for automobiles.

For Kwak, Jong-hee, a team leader, the members of the 2nd Resin Production Team are treasured colleagues who have stayed with him since establishment and through difficult periods.

"The team was formed with a beginning of project in 1996 and the completion of plant in 1997. Our team members have been with me since the beginning. We overcame difficult periods such as a crisis of IMF in 1998. Now, we are at the center of the plant. The resins for automobiles are different from regular resins for architecture, so it is really important to control production lines and quality of products. We are not stopping here, so we are continuously working together to find a solution for higher quality and better yields."

As explained by Kwak, Jong-hee, the 2nd Resin Production Team has advanced & automated production system. The plant, from a design stage, was constructed with automation in mind, and therefore, each production process is operated under automation system. The temperature change control is 100% automated while the mix process is 60~70% automated, second to none in the industry. With a high automation rate, the plant has higher accuracy than others.

Oh, kwang-hun, an assistant manager,

describes that "the members of the team are all Park, Ji-sung".

"We have our own special teamwork. The resin reaction processes are all different, so the members of the team must know every single process. We are all multi-players like Park, Ji-sung. Unlike other teams, all members of the 2nd Resin Production Team are experts and technicians at the same time, and we are proud of ourselves. Furthermore, the senior members work as mentors of the team. The first thing that a new employee does is learning from a mentor. In that way, he becomes the member of the team."

Mentoring for All

You, Jong-jun, a senior manager, has been with the company for 36 years. Literally, he is a veteran and an expert of the 2nd Resin Production Team. Most things have changed over the years if not all. To You, Joing-jun, the tempo of changes is sometimes too rapid, but he is glad that the company is moving towards the bright side.

"The 2nd Resin Production Team is a team of highly skilled experts. Everything runs smooth here. Under a unique system, which is also the team's greatest advantage, each team member can operate any task. We feel rewarded when we complete our jobs without any accident based on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among the members. What do I want from junior members? All I ask is that they do as they are doing now.'

An, Gyeong-bok, a manager, emphasizes that "all members are mentors".

"The jobs that we do cannot be learned in 2 or

3 months, instead they require at least a year.

The junior members learn from the senior members, and the senior members, in turn, teach junior members. They have to do that to learn the basic operation, becoming mentors and mentees to each other."

Choi, Dong-sun, a senior assistant manager, describes the team's mentoring program as an 'open know-how'.

"The team is organized into 2 parts per year, so the teamwork is second to none. In addition, it is common to share knowledge and wisdom with each other. You may hide know-how in other teams, but we share even smallest know-how. In other words, we have an open know-how, not a selfish know-how."

Kim, Nam-seung, an associate and the youngest in the team, has been with the company for 2 years. Originally from the Paint Department, he is now the pillar of hope for the 2nd Resin Production Team.

"I'm the youngest employee of the 2nd Resin Production Team in ten years. So my seniors take great care of me. I'm new to the work, so I make many mistakes, but they teach me many things. They seem to be not paying attention, but in fact, they are always watching over me. I feel safe as veteran seniors are backing me up. I feel great satisfaction when I complete my job."

From a senior with 36 years experience to a young employee with 2 years experience, the 2nd Resin Production Team works together as a single body. With the best teamwork, the 9 experts are working together for the best quality in the industry.



(주)노루페인트 강릉 특약점

**페인트 전문가,
강원도를 넘어
전국을 사로잡다**

NOROO Paint&Coatings Co., Ltd. : Gangneung Special Agency

Paint Expert from Gangneung Capturing the Heart of the Country

산 좋고 물 좋고 인심 좋은 도시 강원도 강릉. 이곳에는 강릉과 강원도를 넘어 전국에 명성이 자자한 페인트 특약점이 있다. 바로 (주)노루페인트 강릉 특약점.  '도장 공사를 한 번 맡긴 사람은 그 완벽한 시공에 다시 찾고야 만다'는 강릉 특약점은 1978년부터 강릉을 지켜온 터줏대감이다. 젊은 도장 기술자로 평생을 페인트와 함께 했고, 2002년 2대 사장이 되어 특약점을 지키고 있는 이중홍 사장을 만나 (주)노루페인트 강릉 특약점의 과거-현재-미래를 들어보았다. Gangneung is a city in Gangwon-do, famous for its beautiful mountain, clean water and generous people. A special agency of NOROO Paint&Coatings Co., Ltd.  is in the heart of the city, renowned for its expertise in paint technique. The Gangneung special agency, a local paint shop since 1978, is famous for "revisits by customers being satisfied  with its perfection in paint technique'. We've met Lee, Jung-hong who is a second-generation CEO of the agency since 2002, to listen to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the agency.

완벽한 품질로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다

이중홍 사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인테리어 전문가다. 그 스스로 “매장보다 공사 현장이 더 편하다”고 말할 정도로 현장을 사랑하는 베테랑. 작업복 차림으로 늘 현장을 지키는 그에게 건물 외벽 작업을 맡겼다면, 발 뻗고 편하게 기다리면 된다. 그만큼 정확한 진단과 완벽한 시공으로 유명하기 때문이다. 지금 맡고 있는 가장 큰 현장은 롯데주류 공장 전체 도색 작업. 2009년 11월부터 공사를 시작해 2010년 4월에 마무리 될 예정이다. “영업도 제가 직접 뚝니다. 현장에 많이 다니다 보니까 건설 업체 관계자들을 잘 알지요. 아무래도 ‘사장이 직접 일한다’는 사실을 참 좋아해줍니다. 그만큼 믿음이 간다는 얘기겠지요. 공사가 잘 되면 또 다른 공사를 연결해주고, 또 연결해주고 합니다. 강릉과 강원도뿐 아니라 서울도 가고 다른 지역도 많이 일이 들어옵니다.”

강원도뿐 아니라 서울을 비롯해 전국 방방곡곡에서 손님을 끌어 모으는 강릉 특약점의 비결은 무엇일까. 이중홍 사장은 “페인트와 기술이 함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강릉은 시장이 작기 때문에 페인트만 팔아서는 힘이 부칩니다. 기술 부분을 공유해야 살아남을 수 있지요. 직접 공사를 맡는 것이 비결이라면 비결입니다.”

1981년부터 특약점의 살림을 맡고 있는 김영숙 실장은 “불황이 비껴가는 곳”이라는 말로 자부심을 보인다. “다른 곳은 불황이라고 하지만 이곳은 불황이 없어요. 최고의 기술자들이 10명 정도 상주하면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작업을 나갑니다. 한 번 찾은 소비자들은 꼭 다시 찾을 정도로 명성이 높습니다. 인테리어 전문으로 내장 외장 모두 정평이 높죠. 사장님이 맡은 공사는 105% 만족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소비자들이 강릉 ㈜노루페인트를 믿고 찾게 되기까지는 이중홍 사장의 완벽함과 신뢰가 큰 작용을 했다. 한 번 맡은 공사는 완벽하게 처리하고 혹시라도 하자가 생기면 금액 상관없이 철저하게 사후처리를 해주었다. ‘소비자가 원하는 100퍼센트를 해주는 것’이 이중홍 사장의 고집이자 신념이다.

행복한 영업소, 행복한 특약점

2002년 이중홍 사장이 특약점을 인수한 뒤로 8년 동안 함께한 ㈜노루페인트 박광진 대리는 “첫 마음을 잃지 않는 완벽주의자”라고 이중홍 사장을 평한다. “영업소장으로서 특약점들을 겪다 보면, 특약점을 처음 시작할 때 품었던 마음을 계속 갖고 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가게가 커지고 매출이 늘다 보면 작은 공사는 안 맡으려 하고 애프터서비스도 잘 안 해주려 하기 십상이죠. 그런데 강릉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8년 전 가게 인수할 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으세요. 소비자를 제일 먼저 생각하는 사장님의 마음이 가장 큰 무기입니다.” 기다렸다는 듯 이중홍 사장은 박광진 대리에 대해 “무척이나 잘해줘서 두말 할 필요 없다”는 말로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김영숙 실장 또한 칭찬을 덧붙인다. “강원도의 보석 같은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에 이렇게 열심히 영업하는 사람이 없어요. 영업소 직원들이 다 박광진 대리 같으면 특약점들이 정말 행복할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아끼듯, 자식이 부모를 위하듯 서로가 서로를 진심으로 칭찬하고 좋아하는 느낌이 각별하다. 이처럼 행복한 특약점과 행복한 영업소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 특약점과 영업소 모두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며 최선을 다해 도우려 하기 때문에 가능한 풍경일 것이다. 이중홍 사장은 ‘품질 제일’이라는 말로 노루에 대한 신뢰를 표현한다.

“㈜노루페인트 특약점의 장점이라면 무엇보다 품질이죠. 노루를 맡기 전에 다른 페인트 대리점에서 일도 해보고 대리점도 직접 운영해봤어요. 그런데 노루만한 제품이 없습니다. 페인트회사의 생명이 뭐니까? 페인트 아니겠어요? 공사 현장에 ㈜노루페인트 들고 나가면 고객들이 ‘좋은 제품 들고 왔다’고 좋아하십니다. 그만큼 품질로 인정받기 때문에 강릉 일대에서 인지도가 굉장히 높죠. 또 소비자들이 원하는 다양한 제품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강원도의 보석 같은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에 이렇게 열심히 영업하는 사람이 없어요. 영업소 직원들이 다 박광진 대리 같으면 특약점들이 정말 행복할 겁니다.”



2002년 이중홍 사장이 특약점을 인수한 뒤로 8년 동안 함께한 ㈜노루페인트 박광진 대리는 “첫 마음을 잃지 않는 완벽주의자”라고 이중홍 사장을 평한다.



(주)노루페인트와 함께 한 경험과
노하우는 수십 년 동안 현장에서
직접 쌓은, 돈 주고도 절대 사지 못할
귀한 보물이다.

기술의 맥이 끊이지 않기를 바란다

“(주)노루페인트에 바라는 점이요? 대리점으로서 바라는 점은 물론 제품의 질이죠. 지금도 물론 좋지만 많이 연구하고 고민해서 제품의 질을 더욱 향상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품질과 함께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상품들을 더 다양하게 개발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좋은 품질에 더해 홍보도 많이 해준다면 좋겠죠.”

이중홍 사장은 아울러 “영업소와 특약점 사이의 신뢰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바람으로 꼽았다. 또한 침체되어 있는 지역 경제가 올림픽 특수를 타고 조금이나마 살아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강원도가 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동계올림픽이 열리게 되면 큰 공사들은 당연히 (주)노루페인트 강릉 특약점이 해낼 것이라 믿고 있을 정도로 자신감 있는 이중홍 사장. 그러나 이런 그에게도 걱정은 있다. 요즘 그의 가장 큰 고민은 ‘도장 전문가의 맥이 끊길 지도 모른다’는 것. 젊은 친구들이 일하러 오지 않는 것이다. 실제로 특약점 유리문에는 ‘건설 도장공 구함’이라는 종이가 붙어 있다.

“젊은이들을 가르쳐서 이 일을 계속 이어가고 싶은데 일하러 오는 친구들이 없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서 피하는 거겠죠. 보기에는 힘들고 어려워 보이지만, 도장 기술은 당당한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일입니다. 한 번 배워두면 은퇴 없이 평생 일할 수 있는 전문 기술인 것이죠. 요즘 청년실업 심각하고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실의에 빠져 있는데, 부디 뜻있는 젊은이들이 많이 찾아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평생을 (주)노루페인트와 함께 한 경험과 노하우는 수십 년 동안 현장에서 직접 쌓은, 돈 주고도 절대 사지 못할 귀한 보물이다. 그는 그가 쌓은 보물이 전승 없이 흩어져 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젊은 세대에게 자신의 기술을 물려주고 싶은 그의 바람이 꼭 이루어져서, 강릉 특약점이 100년 뒤에도 그 자리에 남아 있기를 기원한다. 그 때쯤이면 대한민국 최고의 특약점이 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함께.

Capturing the Heart of the Customers through Perfect Construction

Lee, Jung-hong is recognized as an expert and veteran in interior job. He loves being in the construction site so much that he comments, “I feel more comfortable in the construction site than my shop.” If you ask him to work on your exterior walls, then you can forget about it and wait comfortably because he will be working on it passionately in his working clothes. He is famous for his accurate diagnosis and perfect construction. At the moment, his largest job is with Lotte Liquor, painting the whole plant with a schedule to complete between November 2009 and April 2010

“I run business by myself. I go to construction sites often, so I know many construction company people. They like the fact that ‘CEO runs the business’ and have more trust in me. If I do good job, they will give me more jobs and even more jobs. I not only get jobs from Gangneung and Gangwon-do, but also get jobs from Seoul and other districts.”

What’s the secret behind the popularity of Gangneung special agency, attracting customers not only from Gangwon-do but from all over the country including Seoul?

Lee, Jung-hong explains, “It is because I have paint and technique together.”

“The market in Gangneung is quite small, so I cannot make enough profit just by selling paints. I have to be expert in technique to stay in the business. I think that the secret is running the business by myself.”

Kim, Young-suk, a head of the agency’s department, is in general

charge of the business since 1981. She is proud of the agency, commenting that “there are absolutely no recessions in this agency”.

“There may be recessions in other places, but we never had one in here. We have about 10 experts who are always prepared to go out to the work. We are really famous for revisits by our royal customers. We are expert in interior business and famous for the exterior and interior design. Our customers are 105% satisfied on the job done by our CEO.”

The royalty of customers was possible through the perfection and trustworthiness of Lee, Jung-hong. He always does a perfect job and offers after-sales service in case of flaws. His business principle, he insists, is to ‘satisfy customers 100%’.

Happy Sales Office, Happy Special Agency

Park, Gwang-jin, an assistant manager of NOROO Paint&Coatings Co., Ltd., has been working together with Lee, Jung-hong for 8 years since his took over of special agency in 2002. Park, Gwang-jin comments that Lee, Jung-hong is a “perfectionist who never forgets when he first began the business”.

“As a head of sales office, I meet many special agencies, and it is hard to keep the fresh mind when you first began the business. The shops get bigger and your sales grow, so you often disregard small jobs and after-sale services. But Gangneung agency is not like that. It has same fresh mind as 8 years ago. Lee, Jung-hong’s best weapon is his fresh mind, always thinking on behalf of the customers.”

Lee, Jung-hong immediately responded to Park, Gwang-jin and



thanked him for “always taking best care of the agency”. Kim, Young-suk also praised Park, Gwang-jin. She comments, “He is a jewel of Gangwon-do. There isn’t anyone in the country who works as hard as he does. Any special agency would be happy if sales office members are like him.”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is like parents loving their children and children respecting parents. This relationship is one of a kind, which is only possible through trust, respect and cooperation. Lee, Jung-hong praises and trusts the NOROO’s products as the ‘best quality’.

“It is great to be a special agency of NOROO Paint&Coatings Co., Ltd. Its products are the top of the line. Before I took over the NOROO agency, I’ve worked on other agencies and operated some of them. But none were like NOROO’s products. What decides the success of a paint company? Isn’t it paints itself? When I bring NOROO Paints, our customers are happy and comments that ‘you’ve brought wonderful products’. This is because NOROO paints are famous for their quality all over Gangneung. Furthermore, NOROO Paint&Coatings Co., Ltd. continually releases new products, so our customers have a wide range of choice.”

Hoping that Painting Know-how will be Passed On

“What do I want from NOROO Paint&Coatings Co., Ltd.? As a NOROO special agency, I want the best quality possible. The NOROO’s products are great, but I hope that NOROO develops even better products. Besides the quality, I also hope that NOROO can deliver more wide

range of product. It would be even better if NOROO does more marketing of their products.”

In addition, Lee, Jung-hong hopes to continue “the trust relationship between the NOROO’s sales office and special agency”. The local economy is in recession at the moment, and he hopes that Gangwon-do will be picked as a favorite to win the Pyeongchang Winter Olympic Games. Lee, Jung-hong believes that his NOROO special agency can win many big constructions if Gangwon-do wins the Winter Olympic Games. Despite his confidence, he also has worries. His biggest worry is that ‘there may be no more painting expert in the future’. The job isn’t popular among young people. In fact, there is a flyer on the glass of the agency stating, “looking out for apprentice painters”.

“I want to teach young people and continue the business, but no one is interested. They think that the work is hard and difficult. It may look hard at first, but you can become a proud expert in painting. If you get hold of know-how, then you can be a painter for your whole life without worrying about retirement. Many young people are unemployed, and I truly hope that they come to my place.”

Lee, Jung-hong spent all his life with NOROO Paint&Coatings Co., Ltd., acquiring years of experience in the business. His know-how is a treasure, which is something that you cannot buy with money. He hopes that his know-how doesn’t get lost without being passed on. We also wish that his hopes will come true and wish that Gangneung special agency will stay in the business for next 100 years. It will become the best special agency by then.

건축사업부 세미나 개최

Construction Paint Business Division Hosting Seminars

Experience! Visual! Amazing!

㈜노루페인트는 2010년도 성수기를 대비하여 특약점 대표자 및 도장기술자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특약점대표자 세미나(전국3곳), 도장기술자 세미나(전국10곳)로 전국에 걸쳐 개최하였으며 EVA(Experience(느끼고), Visual(확인하고), Amazing(감탄하라))의 컨셉으로 진행되었다. 2010년 노루의 경영 원년을 맞아, 녹색경영 의지를 담아 새롭게 개발한 친환경 제품 소개 및 시공방법을 실제 시연하는 등의 다양한 소개로 이루어졌다. 예년과 다르게 전문 전시장 형태의 5개 테마관이 구성되었다. 부스별(Thema1. 녹색관, Thema2. 친환경, Thema3. Innovation Anycolor System, Thema4. NEW Brand CK, Thema5. Surprise! NOROO)로 구성된 세미나를 실시하여 큰 호응을 받았다. 또한 세미나 현장에서 조색기, 측색기의 판매 계약이 이루어지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와 함께 이번 세미나를 통하여 (주)노루페인트의 신제품 외에도 기존 시장에서 판매되어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에 대한 다양한 조언을 공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추후에도 각 지점별 네트워크를 통해 제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노루페인트 안성근 상무는 “앞으로도 파트너로서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노루페인트만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지원 체제를 마련하여 최선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NOROO Paint&Coatings Co., Ltd., in preparation for the peak season in 2010, has hosted seminars, inviting representatives of NOROO special agencies as well as paint technicians. 13 seminars were hosted all over the country, 3 for NOROO special agencies and 10 for paint technicians, under the concept of EVA, which stands for Experience, Visual and Amazing. The seminars introduced NOROO's new environment-friendly products which are developed under the Green Management principles of the NOROO Group.

The seminars in this year, unlike previous years, were organized into 5 special theme booths, Thema1. Green Hall, Thema2. Environment-friendly, Thema3. Innovation Anycolor system, Thema4. NEW Brand CK and Thema5. Surprise! NOROO. The seminars were very well-received by audience, and some of them even decided to purchase NOROO's color mixers and spectrophotometers on the scene. Furthermore, the seminars were excellent opportunity to share opinions on the products that are already in the market. In the future, NOROO plans to share variety of information about its products through the network from each branch.

An, Seong-geun, a director of Architectural Paint Division of NOROO Paint&Coatings Co., Ltd., comments, “As a partner, we will take the initiative and set an example, offering a wide range of products to our customers and supporting them on time.”



특약점 대표자 세미나 현장 스케치



도장기술자 세미나 현장 스케치





키즈 바이오페인트
키즈 수성페인트

더 건강하고 더 맑은 아이들의 미소를 위해

(주)노루페인트 어린이용 “뽀로로페인트” 출시

For the Healthy and Beautiful Smile of Children
NOROO Paint&Coatings Co., Ltd. Releasing
“Pororo Paint” for the children





(주)노루페인트가 유해중금속으로부터 안전한 어린이 공간 전용 페인트 “**뽀로로페인트**”를 출시했다.

뽀로로 페인트는 키즈수성페인트와 키즈 바이오페인트 2종으로, 키즈 수성페인트

는 친환경 무독성 페인트로 냄새가 거의 없어 어린이가 생활하는 공간인 아이방, 유치원,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등에 적용하기 좋은 친환경 DIY페인트이며, 키즈바이오페인트는 기존 벽지용 페인트보다 도장이 쉽고 도장 시 냄새가 거의 없는 새로운 타입의 액상페인트다. 벽지, 방문, 창문, 철재, 목재가 구, 베란다 등 어디서나 안전하게 칠 할 수 있는 다용도수성페인트다.

“**뽀로로페인트**”는 도료업계 최초로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중 세계적으로 유명한 국내 애니메이션 “**뽀롱뽀롱 뽀로로**”를 사용한 점만으로도 출시 전부터 큰 화제가 되었다. (주)노루페인트는 캐릭터 저작권자인 (주)아이코닉스와 뽀로로 캐릭터 사용 판권을 계약하고 국내 최초로 도료제품에 적용하는 라이선스를 획득하였다.

이번에 출시한 “**뽀로로페인트**”는 환경호르몬을 걱정하는 부모들의 마음을 고려하여 새집증후군의 주요 원인인 VOC와 포름알데히드를 거의 없앤 친환경 제품으로 어린이가 생활하는 공간에 다양하게 적용 가능하여 누구나 쉽게 칠 할 수 있는 제품이다.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시험에서 항균력 99.9% 인증 받아 어린이가 있는 가정의 봄철 집단장에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어린이 공간에 맞도록 만들어진 감성컬러 페인트로서 컬러테라피를 감안한 컬러 선정으로 아이들의 신체 발달과 감수성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뽀로로페인트**”는 상상력과 창의력에 초점을 맞춘 어린이를 위한 최고의 선물이 될 것이다.

NOROO Paint&Coatings Co., Ltd., in an effort to protect children from harmful heavy metals, has released “Pororo Paint”, a product to be used exclusively for the children’s space. There are two types of “Pororo Paint” at the moment, which are Kids Water Paint and Kids Bio Paint. The Kids Water Paint, a DIY paint, is an environment-friendly nontoxic paint with almost no smell. Therefore, it is applied in the

spaces for children including children’s rooms, kindergartens, child care centers and postnatal care centers. On the other hand, the Kids Bio Paint, a new type of liquefied paint, is convenient to use in comparison to old paints for wallpapers. It is a multipurpose liquefied paint and can be safely applied in any space including wallpapers, doors, windows, steels, wooden furniture and in veranda.

The “Pororo Paint”, even before the release, became famous for the first use of animation character in the paint industry. “Porong Porong Pororo” is an animation developed in Korea, quickly becoming popular with children from all over the world. NOROO Paint&Coatings Co., Ltd. has obtained the license to use Pororo in paint products by making a contract with Iconix, the copyright holder of Pororo characters.

NOROO Paint&Coatings Co., Ltd. understood the parents’ concern about environmental hormones for their children. Therefore, NOROO Paint&Coatings Co., Ltd. released “Pororo Paint”, an environment-friendly product with almost no VOC and Formaldehyde, which are the main causes of Sick House Syndrome. It is easy to use and can be applied anywhere. The paint has received a 99.9% antibacterial rating on the experiment by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Materials, and is expected to gain popularity for the decoration of houses with children in the spring season. In addition, the paint is exclusively made for the children’s spaces and comes in variety of esthetic colors, helping children’s physical and mental development. We believe that the “Pororo Paint” is the “best gift for children with focus on imagination and creativity”.





사랑은
평생의 사랑과
함께
희망의 빛깔을
내놓는다

조규용 대리(주)DAC 구매팀 가족



(주)DAC 구매팀의 조규용 대리(35)는 2년 전 알콩달콩한 가족을 꾸렸다. 아내 김다은 씨(30)는 대학원에서 피아노를 전공하고 있는 음악도. 누가 뭐랄 것도 없이 서로가 서로에게 반해 만난 지 다섯 달 만에 결혼했고, 작년에 귀한 선물인 첫째들 은호를 얻었다. 이 푸릇푸릇한 새내기 가족을 보고 있자니 엄마의 피아노 소리에 아빠의 노래와 아기의 웅얼이가 어우러지는 행복한 풍경이 절로 떠오른다.



‘다름’이 만나 ‘같음’이 되는 이름, 가족

“연애 기간이 짧아서인지, 아무래도 서로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결혼을 해서인지, 결혼하고 얼마간은 부딪힘이 상당히 많았어요. 어떤 면은 무척 잘 맞는가 하면 어떤 면은 너무 달라서 서로를 이해 못해 다투기도 하고 상대방에게 서운하기도 했죠. 지금은 그 모든 일들이 필요한 과정이라 생각하며 되도록 이해하고 받아들이려 노력하고 있어요.”

아내 김다은 씨의 말처럼 초보 부부의 신혼은 좌충우돌의 연속이었다. 30년 가까이 생판 다른 환경, 다른 생각,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온 이들이 하루아침에 함께 살게 되었으니, 서로가 얼마나 당황하고 아팠겠는가. 성격 또한 무척 달라서 아내가 화를 겉으로 표현하지 않고 삭이는 스타일이라면 남편은 화를 내다가도 하루가 못하고 금세 풀리는

스타일이었다. 부딪힘과 다툼은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서 차츰 차츰 이해와 배려로 바뀌어갔다. 조규용 대리 또한 자기 주장과 고집을 조금씩 벗고 좋은 남편으로 거듭나려 노력 중이다.

“아직은 결혼 생활의 ‘맛’만 조금 본 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야말로 초보 남편, 초보 아빠죠. 결혼이라는 것은 하루하루가 새로운 경험이다군요. 연애 경험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상대방 마음을 헤아리는 방법을 잘 몰랐어요. 제가 좀 애늬은이 스타일이라 고집도 세고 주장을 안 꺾는 성격이었죠. 그래서 아내를 많이 힘들게도 했고요. 그런데 내 것만 고집해서는 결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겠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젊은 부부에게 지난 2년은 ‘결혼은 달콤한 꿈이 아니라 다름을 받아들이고 같음을 찾아내는 귀한 삶의 여정’이라는 깨달음을 주는 시간들이었다. 그리고 그 같음의 한가운데에 첫째들 은호가 자리하고 있다.

사랑과 행복의 이중주를 연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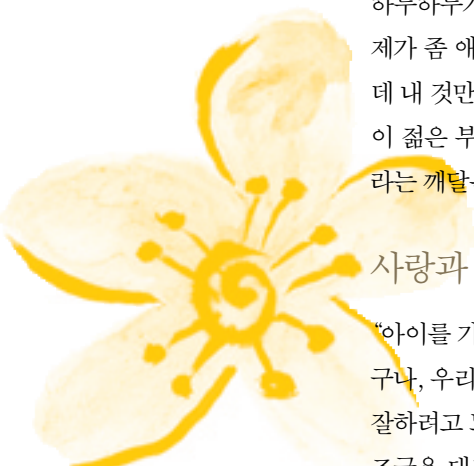
“아이를 가만히 보고 있다면 저절로 부모님 생각이 듭니다. 나 또한 부모님께 이토록 지극한 사랑을 받으며 자랐겠구나, 우리 부모님이 나를 키울때 이렇게 절대적인 사랑을 주셨겠구나, 하는 깨달음이 들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더 잘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양가 부모님께 더 자주 전화 드리곤 하죠.”

조규용 대리의 말처럼 아이는 이들 부부에게는 실로 귀한 선물이자, 잠시 잊고 있던 부모님의 사랑과 정성을 돌아보게 하는 거울같은 존재다. 아빠의 유머와 엄마의 차분함을 고루 닮아 꾀부럭 부리지 않고 늘 환하게 웃는 은호를 볼 때면 부모로서의 사명과 막중한 책임감을 함께 느끼며 더욱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행복한 결혼생활의 조건이란 결국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식 없이 진심으로 대하고 나를 내세우고 주장하기 전에 상대방을 먼저 이해하고 편하게 해주려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나를 비운 마음의 자리에 상대방을 채우는 것’이 행복한 결혼의 필수 조건이라고 이야기하는 다른 씨에 이어 ‘일상의 소소한 것들을 함께 하는 것’이 진짜 행복의 조건이라고 조규용 대리는 덧붙인다.

“퇴근하고 돌아올 때 누군가 날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을 하면 절로 가슴이 따뜻해지고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아내는 영원히 함께 할 사람이자, 모든 것을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 평생을 두고 정신적인 소통이 가능한 사람이라 생각해요. 나에게 가족이라는 귀한선물을 건네준 아내와 일상의 소중함을 나누며 더욱 행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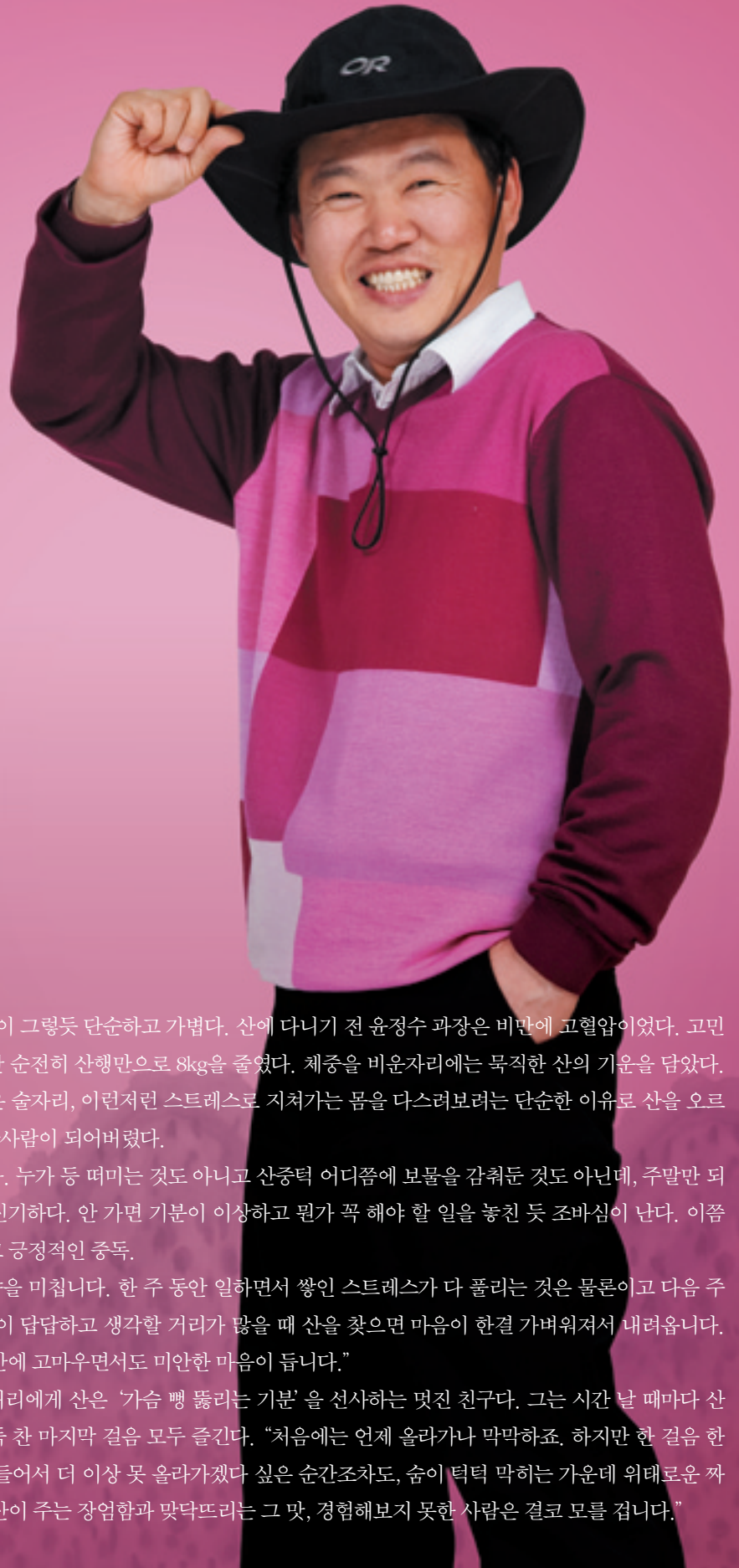
그 깊고 그윽한 골짜기에 마음 한 자락 두고 오다

(주)노루로지넷의 산악인 3인방 **윤정수** 과장(물류기획팀), **조영진** 책임대리(물류기획팀), **류도현** 대리(물류기획팀)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 갈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일찍이 시인소월이 노래했듯 산은 아름답다. 꽃 피는 봄은 봄대로 눈 내리는 겨울은 또 겨울대로, 오롯이 계절이 주는 황홀한 순간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산이다. 산을 좋아하는 이들은 어쩌면 계절이 주는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고스란히 맞고픈 욕심 많은 사람들이 아닐까. (주)노루로지넷 물류기획팀에는 산악인 3인방이 있다. 윤정수 과장, 조영진 책임대리, 류도현 대리가 바로 산악인 3총사. 산에 오르며 이들은 몸의 건강과 마음의 건강을 함께 얻고 있다. 이들에게서 듣는 산 예찬론.



이름, 회사, 직급 + 윤정수, (주)노루로지넷, 과장
 가장 기억에 남는 산(여행지) + 지리산
 좋아하는 계절 + 여름
 평균수면 시간 + 6시간
 나는 가끔 이런말을 듣고 싶다 + 사랑한다
 인간관계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 신뢰
 현재의 소원 또는 목표 + 다이어트
 내 자신에 점수를 매긴다면 + 80



건강하고 활기찬 중독, 산행

이들이 산에 다니게 된 계기는, 어떤 일들의 시작이 그렇듯 단순하고 가볍다. 산에 다니기 전 윤정수 과장은 비만에 고향혈압이었다. 고민 끝에 운동 삼아 산에 다니기 시작했고, 몇 년 동안 순전히 산행만으로 8kg을 줄였다. 체중을 비운자리에는 묵직한 산의 기운을 담았다. 조영진 책임대리와 류도현 대리 또한 업무와 잦은 술자리, 이런저런 스트레스로 지쳐가는 몸을 다스려보려는 단순한 이유로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제는 산 없이는 못 사는 산사람이 되어버렸다.

윤정수 과장은 스스로 “산에 중독됐다.”고 말한다. 누가 등 떠미는 것도 아니고 산중턱 어디쯤에 보물을 감춰둔 것도 아닌데, 주말만 되면 어김없이 산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스스로도 신기하다. 안 가면 기분이 이상하고 뭔가 꼭 해야 할 일을 놓친 듯 조바심이 난다. 이쯤 되면 확실히 중독이다. 중독은 중독이되 건강하고 긍정적인 중독.

“산행은 일상과 회사 일 양쪽 모두에게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한 주 동안 일하면서 쌓인 스트레스가 다 풀리는 것은 물론이고 다음 주를 살아갈 에너지까지 충분히 공급받죠. 특히 속이 답답하고 생각할 거리가 많을 때 산을 찾으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서 내려옵니다. 무거운 생각의 짐들을 산에 다 버려놓고 오니까 산에 고마우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윤정수 과장의 산이 ‘비우는 곳’ 이라면 조영진 대리에게 산은 ‘가슴 뻥 뚫리는 기분’을 선사하는 멋진 친구다. 그는 시간 날 때마다 산을 찾아 산행의 막막한 첫걸음과 성취감으로 가득 찬 마지막 걸음 모두 즐긴다. “처음에는 언제 올라가나 막막하죠.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오르다 보면 가슴에 성취감이 쌓입니다. 힘들어서 더 이상 못 올라가겠다 싶은 순간조차도, 숨이 턱턱 막히는 가운데 위태로운 짜릿함이 느껴지죠.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순간 산이 주는 장엄함과 맞닥뜨리는 그 맛,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결코 모를 겁니다.”



이름,회사, 직급 + 류도현, (주)노루로지넷, 대리
 가장기억에 남는 산(여행지) + 겨울의 소백산(눈꽃)
 좋아하는 계절 + 여름(추운게 제일 싫음)
 평균수면 시간 + 무지 오래잠 약 8~10시간
 나는 가끔 이런말을 듣고 싶다 + 노력의 댓가는 언제나 있을 것이다.
 인간관계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 신용과 믿음
 현재의 소원 또는 목표 + 특별히 생각한것은 없지만,
 목표로 삼고 있는 자격증에 도전해서 꼭 따고 싶은
 생각이 간절함
 내 자신에 점수를 매긴다면 +
 아직은 50점 인생이라 본다. 나머지 50을 조금씩
 채워간다는 자세로 인생 설계를 하고 싶다.

발 딛고 선 바로 그곳이 정상

인생을 100미터 달리기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산행마저도 경쟁과 비교의 도구로 생각한다. 오로지 앞만 보고 정상 정복을 향해 달려가는 이들은 산이 주는 오롯한 아름다움과 산행 자체의 지극한 즐거움을 모르고 넘어가기 쉽다. 산행에 대해 ‘한 번 빠져들면 헤어 나오지 못하는 마력’이라 평하는 류도현 대리는 “등산=정상 정복”이라는 등식을 깨는 경험을 했다.

“저 또한 처음에는 정상 정복을 목적으로 삼았어요. 오르다 보면 자연스럽게 정상이 궁금해지고, 언제 끝까지 오르나 하는 조바심이 들죠. 그런데 얼마 전 도봉산을 오르다 산중턱에서 만난 70대 할머니의 말씀에 뒤통수를 얻어맞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그러시더군요. 산 오르는 사람에게 정상이 어디 있느냐. 내가 발 딛고 선 곳이 바로 정상인 것을. 충격이었습니다. 산행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깨달았죠. 내 즐거움, 내 건강, 내 행복을 위한 산행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산을 좋아하는 이들에게는 명산이 따로없다. 히말라야 14봉 완주가 산행의 끝이 아니듯 동네 뒷산도 나름대로 충분히 가치 있고 산행이 주는 오롯한 기쁨을 주기는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윤정수 과장은 ‘명산이란 곧 자신에게 맞는 산’이라고 강조한다. “국내에 유명한 산도 많고 이름난 국립공원도 참 많습니다. 흔히들 산에 다닌다하면 종주를 했는지, 유명한 산을 얼마나 다녔는지 궁금해하는데, 명산만 찾아다니는 것이 과연 좋은 산행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좋아하고, 자신과 잘 맞는 산에 열심히 꾸준히 다니는 것이 가장 좋은 산행 아닐까요?”

이름, 회사, 직급 + 조영진, (주)노루로지넷, 책임대리

가장기억에 남는 산(여행지) + 설악산

좋아하는 계절 + 겨울

평균수면 시간 + 5시간~6시간

나는 가끔 이런말을 듣고 싶다 + 고생했다(많은의미가..~)

인간관계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것 + 배려, 믿음

현재의 소원 또는 목표 + 개인목표 : 지리산종주,

개인소원 : 자녀계획(아들, 딸) 아무나

내 자신에 점수를 매긴다면 + 75점



산이 있어 행복한 그들

지리산 무박2일 종주. 2010년 조영진 책임대리와 류도현 대리가 이루고픈 하나의 꿈이다. 2010년 5월 지리산 산행을 계획하는 이들은 장엄한 아름다움을 간직한 지리산에 올라 그 너른 품에 안겨보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 남은 기간 더 부지런히 산에 다니며 체력을 기를 생각이다.

“지난 해 가을 무박 2일로 설악산 대청봉에 올랐습니다. 마침 눈이 쏟아지는 바람에 엄청 힘들었어요. 눈을 헤치며 오르는 걸음이 그렇게 팍팍할 수 없었죠. 비탈 아래서 숨 돌리고 또 올랐죠. 끝내 대청봉에 올랐을 때, 해가 돌더군요. 아, 그 때 보았던 해돋이만큼 몽클한 기억이 또 있을까 싶어요. 그때의 감동을 지리산에서 한 번 더 경험하고 싶습니다.”

조영진 대리가 산에서 맞은 감동을 듣고 있자니 산에서 만나는 해돋이가 무척이나 궁금해졌다. 이 좋은 산행을, 다른 이들에게도 권하고 싶지 않을까. 가족과 함께 산에 오르고 싶은 생각은 없는지 궁금했다. 류도현 대리는 ‘산은 자기가 좋아야 가는 것’ 이라고 강조한다.

“산행이 아무리 좋아도 남에게 강요할 생각은 없습니다. 꼭 한 번 산에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야 비로소 산에 오를 수 있죠. 산행이 몸과 마음에 아무리 좋다 한들, 억지로 가는 길이 과연 좋을 수 있을까요.”

누군가는 산이 있기에 오른다고도 하고 또 다른 나를 만나기 위해 산에 오른다고도 한다. 또 누군가는 잔뜩 짙어지고 올라간 마음의 짐을 산에 부려두고 빈 마음으로 내려오기도 한다. 누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목적으로 오르든 산은 묵묵히 그 자리에 있다. 누구도 마다하지 않고 누구도 거부하지 않는다. 말없이 그 넉넉한 품으로 품어줄 뿐이다. 윤정수, 조영진, 류도현 이들 3총사가 산을 찾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새봄의 향기를 찾아 이번 주말 가까운 산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멘토링에 대하여 이야기하다!

GE의 CEO였던 잭월치는 “최고의 인재를 뽑을 수 있고, 최고의 인재를 키울 수 있다면 기업은 성공할 것이다.”라고 인재중시 경영을 외치며 조직내 멘토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멘토링이란 지식이 풍부한 구성원을 1:1로 전담해 지도·조언하면서 실력과 잠재력을 개발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멘토와 멘티라고 구분하고 명명하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의지가 되고 조언을 구하는 관계를 통칭하여 멘토링이라고 할 수 있다. 서로를 성장시키는 멘토링에 대한 노루人的 생각을 들었다. 멘토가 필요하는가라는 질문에는 91%가 넘는 응답자가 그렇다라고 대답했다. 이에 반해 현재 멘토링을 하고 있는 응답자는 58%에 그쳤다. 아직도 멘토, 멘티를 찾지 못한 우리의 노루人들이 있다는 결과다. 주위를 조금만 더 관심있게 돌아본다면 누구에겐가 큰 힘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서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 자신만의 멘토, 멘티가 있습니까?

① YES	58
② NO	32
③ 생각해 본적 없다.	10

2 멘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YES	91
② NO	4
③ 생각해 본적 없다.	5

3 멘토로서 가장 선호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① 직장선배나 동료	73
② 가족	13
③ 친구	2
④ 주변의 지인 등 기타	12

4 인생에서 멘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61
② 그렇다.	34
③ 보통이다.	4
④ 그렇지 않다.	1
⑤ 매우 그렇지 않다.	
⑥ 생각해 본적 없다.	

5 직장내의 후배. 동료의 멘토가 되어주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35
② 그렇다.	45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15
⑤ 매우 그렇지 않다.	5
⑥ 생각해 본적 없다.	

7 직장 내 멘토링 프로그램이 생긴다면, 참여해보고 싶나요?

① YES	80
② NO	3
③ 생각해 본적 없다.	17

6 좋은 멘토를 만난다면 가장 먼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① 직장생활(대인관계, 업무 등)	56
② 경제적인 문제	7
③ 개인적인 문제(가족, 애정, 건강 등)	9
④ 삶의 가치관 등 기타	28
⑤ 생각해 본적 없다.	

8 직장 내 멘토링 프로그램이 어떤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가?

① 개인 업무 능력 강화	13
② 구성원들의 친밀감, 신뢰감 형성	73
③ 회사비전 공유와 공감대 형성	10
④ 우수한 업무성과 창출	4
⑤ 생각해 본적 없다.	

9 멘토링에 대한 스스로 정의를 내린다면? (정의와 간단한 이유를 써주세요)

- ▶ 먼저 경험한 선배의 조언과 성공한 선배의 조언을 토대로 갈 길을 좀 더 빠르게 헤쳐나가고, 개선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멘토링이다.
- ▶ 모든 사람의 후견인이 되는 것을 자칭하며, 다른 사람을 돕는다.
- ▶ 갈등을 해소해 주는 생수 - 갈등과도 같은 문제들을 경험과 노련함으로 해결에 도움을 줌으로
- ▶ 직장생활의 가치와 궁극적 목표 설정의 Arrange에 대한 동반자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삶의 합리적 방향성에 대한 훌륭한 조력자로서의 Navigation,
- ▶ 개인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인간관계, 서로의 관심사가 달라도 장단점들을 보고 듣고 말하면서 개선할 수 있다.
- ▶ 생활의 나침반, 멘토로 인하여 사회경험 및 노하우등을 안내받을 수 있어 사회생활을 잘 해나아갈 수 있다.
- ▶ 멘토로부터 도움을 받고 멘토를 복제하고 멘토가 되어 다른 멘티들에게 나만의 색깔을 가진 멘토가 되어주는 것.
- ▶ 굉장히 필요할 수도...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개인적인 문제?
- ▶ 멘토링은 삶의 지팡이다. 이유는 멘토링으로 인해 목표가 생기고 이루기 위한 열정이 생길 것이기 때문이다.



스마트폰, 그 것이 알고 싶다

출퇴근길 지하철의 풍경이 달라졌다. DMB폰의 자리를 스마트폰이 대신하고 빛의 속도로 휴대전화 문자를 보내는 엄지족 대신 터치스크린을 만지작대는 검지족이 늘고 있다. 앱스토어에는 수만 가지 기발한 애플이 넘쳐나고 투폰족은 전화요금이 두 배로 나가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다. 바야흐로 스마트폰(Smart Phone)의 시대다. 스마트폰 예찬자들은 이 기계가 이름처럼 똑똑하고 영리하다고 극찬한다. 스마트폰은 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나갈까.





인터넷 강국에 맞춘 휴대용 컴퓨터

스마트폰은 기존의 전화 기능에 PDA 기능을 접목한 기계로, '내 손안의 컴퓨터'라는 이름이 딱 맞아 떨어지는 기계다. 오히려 이동전화라기보다 휴대용 컴퓨터로 보는 이들이 있을 정도로 이동 중 인터넷 정보 검색이 자유롭고 그림 정보 팩스 전송 등이 가능한 차세대 휴대전화다. 스마트폰이 이토록 빠른 속도로 확산된 것은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 중에서도 단연 인터넷 활용 능력 때문이다.

스마트폰의 제일 큰 특징은 휴대전화 하나로 언제 어디서건 웹 검색이 가능하다는 것. 파워 블로거들은 실시간으로 자신의 블로그에 들어가 글을 올리고 블로그를 가꾼다. 트위터를 쓰는 이들에게 스마트폰은 무엇보다 중요한 소통 수단이다. 또한 본질적으로 스마트폰이 기존의 휴대전화들과 다른 점은, PC처럼 프로그램 설치가 가능해 어떤 기능이라도 추가가 가능하다는 점에 있다.

생활에 필요한 여러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열광하는 부분이다. 버스 운행 정보, 데이트에 필요한 맛집 정보 등 실속 있는 정보들을 필요한 순간마다 찾아볼 수 있다. 인터넷 의존도가 높은 업종에서 스마트폰은 더욱 각광받는다. 메일로 주고받는 중요한 업무 때문에 급히 피시방을 찾아야 했다면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 지방 출장이 잦거나 외부 업무가 많은 이들에게 무선 랜을 장착한 스마트폰은 언제 어디서건 쓸 수 있는 인터넷 노릇을 톡톡히 한다.

정보 검색, 신문 읽기, 쇼핑, 은행 업무 등 생활의 많은 부분을 인터넷으로 해결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스마트폰의 인기는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지금까지 어른들에게 휴대전화란 걸어 다니며 쓸 수 있는 전화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이동전화가 아이들, 청소년들의 장난감이었다면 스마트폰은 어른들의 장난감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스마트폰을 '갖고 노는' 어른들이 많아졌다.

찾았다, 어른들의 장난감

사진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40대의 김모 씨. 아침부터 밤까지 일에 바빠 초등학교 5, 6학년 연년생 아이들과 놀아줄 시간이 거의 없었던 그는 몇 달 전부터 아이들과 부쩍 친한 아빠가 되었다. 스마트폰 덕분이



Smart Phone



다. 스마트폰에 다운받은 별자리 찾기 애플리케이션이 아이들과 그를 이어주는 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그의 집은 경기도의 한 도시로 서울보다 공기가 맑아 별이 많이 보인다. 그는 가끔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 스마트폰을 하늘에 비춰본다. 스마트폰이 지피에스로 위치를 찾아 아이들의 머리 위에 있는 별자리들의 이름을 알려주면, 아이들은 별자리를 세며 좋아한다.

30대 남성 회사원 채모 씨. 음악을 좋아하는 그에게 스마트폰은 휴대용 악기다. 평소 기타나 드럼을 배우고 싶었지만 시간과 돈 때문에 엄두가 나지 않았으나 악기 연주 게임을 다운 받아 틈나는 대로 '연주'를 한다. 좋아하는 록그룹의 노래에 자신이 직접 연주자가 되어 기타 연주를 하는 기분을 마음껏 느끼다 보면 회사에서 쌓인 스트레스도 어느새 풀리는 것만 같다. 이밖에도 그는 취향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찾아 활용하고 있다.

프리랜서 편집자인 30대 여성 송모 씨는 스마트폰으로 틈틈이 책을 읽는다. 이들은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하다고 입을 모은다. 스마트폰 활용이 곧 취미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스마트폰의 주요 고객인 30, 40대는 경제력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응용 프로그램을 사는 것에도 기꺼이 비용을 지불한다. 술 마시는 것 말고는 마땅히 놀거리가 없던 어른들에게 스마트폰이 새로운 놀이터가 되고 있는 셈이다.

일하는 모습까지 바꾸는 스마트폰

스마트폰은 일하는 문화까지 바꾸고 있다. 기업들에게 스마트폰은 새로운 영역을 펼쳐 보이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신속한 소통과 효율적인 업무, 현장 중심의 업무 진행 등 스마트폰이 갖고 있는 장점에 주목한다. 도시철도공사는 올해부터 스마트폰을 활용한 유지보수 작업을 벌이고 있다. 역사 내부 시설을 점검하다 고장을 발견하면 직원들은 즉시 스마트폰에 고장 사실을 입력한다. 기계마다 바코드가 붙어있어 어느 기계가 고장 났는지 간편하게 입력할 수 있고, 입력된 정보가 통제 센터로 전송되면 통제 센터는 현장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수리직원에게 작업을 요청하는 것.

외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회사 네트워크에 직접 연결해 업무를 처리하는 회사도 늘고 있다. 이를 하여 '모바일 오피스' 구축. 포스코의 직원들은 외부에서도 회사 내부 인트라넷을 연결해 회사 메일이나 업무 결재, 회사 내부정보 검색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다. 스마트폰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SK그룹도 외부에서도 사내와 비슷한 업무 환경을 구축한다는 목표로 그룹 포털 구축과 연계해 스마트폰 활용 환경을 개발하고 있다.

언제 어디서나 업무가 가능하다는 스마트폰의 특성과 여러 장점 때문에 스마트폰을 회사 차원에서 장려하는 기업이 늘고 있고, 덕분에 직장인들에게 스마트폰 배우기는 하나의 화두가 되고 있다. 최근 백화점 문화센터가 무료로 연 스마트폰 강좌에 40, 50대 남성 직장인들이 몰린 현상은 스마트폰과 업무가 직접 연결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스마트폰을 써야 하긴 하는데, 활용이 어렵다 보니 여성들의 공간이라 여겨졌던 백화점 문화센터가 아저씨들로 북적대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스마트폰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물론 스마트폰 예찬론 뒤에는 부정적인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일과 사생활이 구분되지 않아 직장인들에게 새로운 족쇄가 되고 있다는 것, 인터넷의 편리함 때문에 웹중독이 심해진다는 점, 놀이에 빠져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다는 점 등 여러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다. 얼마 전 미국 스마트폰 사용자 1000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 따르면 책이나 신문 읽는 시간은 20% 줄고 공부하는 시간은 10% 주는 등 스마트폰을 사용한 뒤 주로 지적 활동에 관련된 시간이 크게 줄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스마트폰으로 이른바 손목터널증후군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그러나 이 모든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은 무섭게 퍼져나가고 있으며 새로운 세상을 펼쳐 보이고 있다. 이동전화의 개념과 판도까지 바뀌었으며 우리 생활에 파고들고 있는 스마트폰. 노루들은 과연 스마트폰을 만날 준비가 되었을까. 일상의 새로운 활력, 업무 효율을 돕는 든든한 친구, 새로운 소통 방식 등 여러 모습을 가진 스마트폰을 어떻게 맞닥뜨릴지 고민해야 할 때이다.

알면 힘이 되는 스마트폰 용어 사전

@ **검지족** : 스마트폰의 터치스크린을 주로 검지 손가락으로 조작하는 모습에서 생긴 말. 검지족 이전에 휴대전화 문자 보내기에 능한 엄지족이 있었다.

@ **무선인터넷 플랫폼** : 이동전화 단말기에서 퍼스널컴퓨터의 운영체제(OS)와 같은 역할을 하는 기본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 **SNS** :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를 뜻한다. 웹 기반의 인맥구축, 사회관계망 서비스. '트위터'와 '페이스북', 네이버의 '미투데이' 등이 유명하며 1인과 다수의 관계망 설정이 가능하고 실시간 체크를 가능하게 하는 등 타인과의 소통을 간밀·신속하게 해준다는 특징이 있다.

@ **웹 애플리케이션(Web Application)** : 줄여서 웹앱이라고도 부르는 애플리케이션은 인터넷이나 인트라넷을 통해 웹 브라우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 **앱스토어(App Store)** : 스마트폰에 넣을 수 있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판매하는 온라인상의 모바일 콘텐츠 장터. '애플리케이션 스토어(Application Store)'의 준말.

@ **위피(WIFI : Wireless Internet Platform for Interoperability)** : 대한민국의 표준 이동통신 플랫폼의 이름. 이동통신 업체들이 같은 플랫폼을 이용해 국가적 낭비를 줄이자는 목적으로 2001년부터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 **와이파이(Wi-Fi)** : 무선접속장치(AP)가 설치된 곳의 일정 거리 안에서 초고속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근거리통신망. 전파나 적외선 전송방식을 이용하며, 와이어리스랜(Wireless Lan)이라고도 한다.

@ **투(2)폰족** : 휴대전화를 2대 사용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 일할 때 쓰는 휴대전화와 놀 때 쓰는 휴대전화로 구분한다.



복전노루의 선택은 아름다운 인생의 시작

복전노루 기술서비스부 등존희

Deung, John-hui from Technical Service Department of NOROO FUTIAN Guang Zhou Co., Ltd.

2006년 6월, 저는 열정과 꿈을 가슴에 가득 안고 복전노루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입사할 당시 저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분야를 접하게 되어 매우 설레면서도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런 제게 회사의 기업문화와 제도는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누구나 평생을 보내며 여러 시련을 겪게 마련이고 시련을 겪을 때마다 경험이 될 뿐 아니라 배움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배움은 개인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복전노루에서 교육을 받고 학습하면서 저는 이 기업의 성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08년 4월, 합자회사인 (주)광주복전노루가 설립되었습니다. 회사 설립 후 1년여가 지난 지금, 회사의 기술 및 경영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고 그동안의 회사의 성과와 업적은 더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더 높은 수준으로 향상될 것이며 중요한 것은 이를 마음속에 새기고 NOROO 가족에 하루라도 빨리 합류하여 실질적인 일을 더 많이 하는 것입니다. 찬란한 2009년이 저물어가고 있는 이때, 저는 회사의 목표와 아름다운 비전은 우리의 손에서 실현되고 창출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사명과 인생 목표를 명심하고 분발하고, 서로 협조하여 각오를 다지고 완강한 정신력과 확고한 노력을 통해 회사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더 많은 성과를 거둘 것입니다.

입사 후 3년여가 지나면서 복전노루의 위대함을 하루하루 느끼고 있으며 복전노루란 고속열차에 승차할 수 있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반면 심리적 부담도 함께 커져, 조금만 해이해지면 언제라도 열차에서 떨어질 것 같습니다. 복전노루를 선택한 이유는 회사가 우리들에게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자신감을 갖고 노력만 한다면 이 큰 무대에서 멋지게 춤추고, 아름다운 인생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eginning of Beautiful Life with NOROO FUTIAN Guang Zhou Co., Ltd.

On last June 2006, I joined NOROO FUTIAN Guang Zhou Co., Ltd. with passion and dream in my heart. I felt uneasy yet excited at the same time because the job is completely new to me. Despite my worries, the company has left a deep impression on me with its wonderful culture and a great training system. Everyone face a number of difficulties throughout the life that turn out to be new experiences and opportunities for learning. Through them, you grow to be a better person. By having training from NOROO FUTIAN Guang Zhou Co., Ltd., I was sure of the success of the company.

NOROO FUTIAN Guang Zhou Co., Ltd., a joint-stock company, was established in April 2008. A year has gone by, and it's been steadily making huge improvements in technology and management method. Words cannot describe the company's amazing performance throughout the year. The company will march forward, and I will try to become a member of NOROO family and improve my performance in the job.

The year 2009 is almost over, and I've come to a conclusion that the goal and vision of the company is only possibly through our hands. With strong spirit and firm determination, we must remember our duty and the goal of life and must cooperate with each other. We will achieve great performance for the growth of the company.

Since joining the company 3 years ago, I feel the greatness of NOROO FUTIAN Guang Zhou Co., Ltd. every day, and I'm honored to be with NOROO FUTIAN Guang Zhou Co., Ltd., which is a high-speed train towards a brighter future. On the other hand, I have a higher responsibility, so I'm worried that I may fall down from the train if I become lazy. I joined NOROO FUTIAN Guang Zhou Co., Ltd. because it is the place that I can freely use my talents. If I become confident and put all my effort into it, I feel that I will have a fuller life.



작은 걸음, 큰 걸음

기술 서비스부 예비간부 황스와이

Hwang, Su, a future executive from Technical Service Department

지난 6월, 모교를 떠나 동창들과 석별의 정을 나누며 열정과 꿈을 가슴에 가득 안고 복전노루 가족에 합류하며 인생의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11월, 더위가 점점 물러나고 추위가 남쪽까지 내려오기 시작할 무렵 저의 마음도 차츰 안정되었습니다. 5개월이란 시간은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는 작은 한 걸음에 불과하지만 남은 인생에서는 커다란 한 걸음이었습니다. 처음 입사했을 때 아무 것도 모르던 신입사원이 현재의 정상케도에 진입하기까지, 또 문외한이 제품의 개발, 생산, 공정 모두 이해하기까지 주변의 동료들과 친구들의 배려와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을 것입니다.

교육센터에서 기술자들에게 조색, 스프레이 방법을 배우는 과정은 다소 힘들고 어려웠지만 마침내 다양한 컬러와 반짝이는 코팅 층을 벗을 때는 노력의 결실을 맺는 기쁨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기술부에서의 한 달간의 실습을 통해 간단한 배합 방법과 샘플 처리 및 기계 사용방법을 배우고 불량품을 개선시키는 방법도 체감해 볼 수 있었습니다. 비록 성공은 못했지만 제품의 기본 원리를 배울 수 있었고, 성공에는 지식과 경험뿐만 아니라 인내심과 신념이 있어야 한다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품질관리부에서 샘플링부터 추출 검사, 성능 테스트까지 한 달 동안의 번거롭고 바쁜 업무를 수행하면서 꼼꼼함과 책임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산 현장 견학 때에는 원료 투입 과정을 살펴보고, 포장 작업을 돕기도 하고, 설비를 사용해 보았습니다. 노동자들의 노고를 체험하면서 제품이 출하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부서가 연계되고,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의 수고와 땀이 배어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일정 기간 교육을 받으면서 모든 부서가 독자적인 작은 단체를 이루고 있으며 부서별로 고유의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모든 부서는 각자의 직무에 충실하지는 공동 목표를 갖고 있어 고객에게 제품을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기업이라는 커다란 집단은 하나로 맞물린 거대한 기계처럼 독립적인 각 부서의 협력 하에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처음 입사했을 때 박총경리는 우리 신입사원들에게 자신이 회사에서 성장한 과정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말단 직원으로 일선의 제품 개발부터 시작하여 꾸준히 노력하여 결국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하며 현실과 이상의 차이는 스스로 균형을 이루며 채워나가야 한다고 조언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회사는 우리들에게 단지 성장할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해 주는 것이며, 무대 위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는 자기 자신에 달려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며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는 순간부터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고 우리는 새로운 무대에 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의 경험과 성장은 반드시 내일의 성공과 성과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의 작은 한 걸음은 미래 제 인생의 큰 걸음이 될 것입니다.

A Small Step, A Big Step

In last June, I left my school and classmates, telling each other how sorry we were to part. Then with a passion and dream, I took a first step

in my life by joining NOROO FUTIAN Guang Zhou Co., Ltd. The heat let up as it turned November, and the cold has come down to the southern area. By that time, I began to feel more comfortable. The last 5 months may have been a small step in my life, but it was also a big step. Basically, I was a new employee without any knowledge in the business such as product development, production and process, and I couldn't be here without help from my friends and teammates.

It was difficult to learn techniques for color mixing and spreading from technicians in the training center, but I felt great joy when I finally made various colors and shining coating layers, which were results of my hard work. Through a month of training in the Technical Department, I was able to learn simple color mixing and also learned the use of samples and measuring instruments as well as a method to improve yields. Although I wasn't always successful, I learned the basis of products and also realized that success requires not only knowledge and experience, but also patience and principle. By spending a busy month in Quality Test Department, doing various jobs from sampling to extract testing and performance testing, I became thorough and responsible. Finally, I had a visit to the production line, examining raw material injection, helping packaging and finally running machines by myself. Through the visit, I experienced the hard work of employees, realizing how many departments are intertwined to ship the final product and how hard the employees are working.

By taking a monthly training from each department, I learned that each department is also a small independent group within the company with a unique atmosphere. However, the departments had a same common goal of being faithful to their duties, so they were able to provide stable products to customers. The company is like a big machine, working precisely under the cooperation of small departments.

When I first joined the company, General Manager Lim explained his time in the company to new employees. He started out as a new employee, just like us, and then he became charge of product development, and finally became successful by putting all his efforts into his duties. He suggested that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reality and dream, so we must find a balance between two. I agree with him. The company offers an opportunity for growth, and it depends on us to be successful. From the graduation, we are taking a new step into a new stage of life. I believe that my experience and growth from today will become foundations for tomorrow's success. The small step that I take today will become the big step of my life in the future.



새다름 여행-정크아트공작소

이 세상
모든 쓰레기들이
예술로 다시
태어나는 곳

작품 소개
정크아트공작소
정크아트공작소는
도시의 쓰레기를
예술로 재탄생
시키는 곳이다.
정크아트공작소는
도시의 쓰레기를
예술로 재탄생
시키는 곳이다.

문제 하나, 다음 보기의 물건들은 어디에 쓰이는 것일까? 페타이어, 자동차 바퀴살, 포클레인 발톱, 다 쓴 소화기, 오토바이 기름통, 자동차 엔진 조각, 철근, 녹슨 톱니바퀴, 구부러진 숟가락, 포크, 과일칼, 케이블 등. 고물상이나 폐차장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고철과 폐품, 쓰레기들이 모두 해당된다. 정답은 '예술'이다. 페타이어와 숟가락, 버려진 소화기와 철근 조각들이 무슨 예술에 쓰이느냐고? 진짜다. 믿지 못하겠거든 지금 당장 충북 음성으로 달려가 보자. 그곳에 가면 눈으로 직접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할 놀라운 현상이 펼쳐진다.

버려진 것들이 예술로 피어나는 곳



충북 음성군 음성읍 신천리 반기문로(음성은 우리나라 최초의 UN 사무총장인 반기문 씨의 고향으로, 그의 이름을 따서 길 이름을 붙였다) 솔밭공원에 가면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예술과는 전혀 다른, 그야말로 새로운 예술을 만날 수 있다. 의도한 방문이든 우연히 들렀든 이곳에서 맞닥뜨리는 작품들은 그야말로 '상상초월'이다.

이 기발한 예술의 이름은 바로 정크아트. 그림이나 조각, 붓글씨나

설치미술 등 전통적인 의미의 미술과는 다른 장르이지만 이 또한 분명 미술이고 예술이다.

정크아트(junk art)에서 '정크'란 말 그대로 폐품·쓰레기·잡동사니를 의미하는 것으로, 쓰레기나 폐자재를 활용한 미술작품을 뜻한다. 정크아트의 출발은 1950년대로, 산업폐기물이나 공업 제품 등이 만들어진 폐품에서 작품의 소재를 찾으려는 시도가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적 늦게 보급되었고, 활동하는 정크아티스트의 수도 적어 쉽게 찾아보기 힘든 장르다.

여기저기서 한두 점씩 만나는 것에 목말랐던 정크아트 마니아라면, 반드시 들러 봐야 할 곳이 바로 이곳 음성군의 정크아트공작소다. 전시된 작품 수는 무려 1백여 점이 넘고, 그 종류 또한 공룡, 곤충, 동물 등 구상 작품과 작가의 상상력만으로 오롯이 만들어낸 비구상 작품들로 다양하다. 정크아트공작소의 야외 갤러리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정크아트의 상식과 틀을 완전히 뛰어넘는 작품들을 볼 수 있다. 온갖 쇠조각들을 이어 만든 어마어마한 크기의 공룡은 실감나게 무시무시하고, 페타이어를 실처럼 꼬아 붙인 봉황은 금세라도 깃을 치고 날아오를 듯 생생하다. 폐 오토바이로 만든 그네, 뽀로로가 장식된 시소 등 아이들을 위한 놀이기구도 곳곳에 마련되어 있다. 눈 돌리는 곳마다 재미난 놀이거리로 가득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할 곳이다. 그러나 아이들만을 위한 놀이터라고 생각하면 오해다. 아이들을 위해 찾아왔다가 어른들까지 흠뻑 빠져드는 곳이 바로 이곳 정크아트공작소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다시 생각한다

문제 둘, 다음 중 정크아트의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1. 폐품(잡동사니)을 소재로 제작한 미술 작품을 정크아트라고 한다. 2.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나온 모든 부산물이 정크아트의 소재가 된다. 3. 정크아트에 쓰이기 위해서는 재료가 깨끗하고 흠이 없어야 한다. 정답은? 3번이다. 깨끗하고 흠 없는 재료일 필요는 없다. 오히려 낡고 부서지고 더러운 상태 그대로 작품이 된다. 정크아트의 본질은 '편리함과 효율성을 추구하면서 갖가지 쓰레기를 쏟아내는 현대 도시 문명에 대한 비판'에 있기 때문이다.





정크아트공작소의 작품들은 그 자체로 환경과 삶에 대한 진지한 교육 재료다. 작품들을 하나 하나 관람하다 보면 자연스레 우리가 버리는 물건들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다. 그 동안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필요와 효용이라는 이름으로 소비해왔으며 또 얼마나 가차 없이 물건들을 버려왔는가를. 작품이 갖고 있는 의미와 자연의 관계를 찬찬히 되새긴다면, 아이들의 환경 교육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아쉬움도 있다. 아직 제대로 된 야외 전시장이 아니라는 것. 개인 사유지를 빌려 전시 공간을 마련해둔 탓에, 찾아가는 길에 그 흔한 표지판 하나 세워져 있지 않다. 이토록 훌륭한 작품들이 방치되어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이다. 예술가 개인의 취미나 헌신으로만 보기에 작품들이 갖고 있는 공적인 가치는 무척이나 크다. 지자체나 관공서, 뜻있는 기업들의 후원이 절실한 대목이다.

그 어느 때보다 인간과 환경의 관계에 새로운 인식 전환이 필요한 지금, 하루 정도 시간 내어 정크아트공작소에 들러보는 것은 어떨까. 우리가 무심코 버렸으나 새로이 자연으로 살아난 것들이 이곳에서 숨 쉬고 있다.

정크아트공작소 : 011-459-0945(윤영기)

충북 음성군 음성읍 신천리 84-2 홈페이지 Junk-car.co.kr



Interview JUNK ARTIST

정크아티스트 윤영기 씨

그는 실제 이름보다 '파브르 윤'이라는 별명으로 더 알려져 있다. 곤충에 각별한 애정을 쏟고 있는 그의 작품을 만난 아이들이 붙여준 별명. 그가 낳은 나비, 개미, 하늘소, 잠자리들은 마치 곤충도감에서 그대로 옮겨온 것처럼 생생하다. 더욱 놀라운 것은 윤영기 씨가 미술의 '미'자와도 관련 없던 사람이라는 것.

"대학원에서 미술과 전혀 관련 없는 전공을 공부하던 차에 우연히 정크아트를 만났는데, 완전히 빠져서 공부를 그만두고 정크아트에 매달렸습니다. 그야말로 정크아트에 미친 것이죠. 미술에 대한 기초 지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저 공부하는 수밖에는 없더군요. 거북이를 만들고 싶을 때는 자연도감을 보며 몇날 며칠 거북이를 연구했습니다. 개미를 만들고 싶으면 개미를 공부했죠. 다른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이고요."

정크아트는 디자인은 물론이거니와 용접, 전기 등 과학적인 지식과 철학 등 굉장히 많은 부분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다. 윤영기 씨가 정크아티스트로 살아온 몇 년은 지난한 독학과 연구의 날들이었던 셈.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그는 "무심한 고물에서 생명이 깃든 자연을 표현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세웠다.

"폐자재를 가만히 보고 있자면 자연과 참 많이 닮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람이 만든 물건이지만, 사람 자체가 자연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물건도 자연과 닮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윤영기 씨가 정크아트에서 발견한 신비는 '인간이 만든 모든 물건은 자연을 닮았다'는 깨달음이다. 특별한 가공이나 교정 없이, 버려진 오토바이 기름통이 그대로 개미의 머리와 몸통이 되어 완벽히 개미로 태어나는 신비. 마치 개미의 몸을 보고 오토바이 기름통을 만든 것처럼 닮았다.

정크아트란 어쩌면 버려진 물건에 숨은 자연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작업이 아닐까. 보통 사람들은 다만 쓰레기로만 보는 물건들에서 윤영기 씨는 자연을 보고 생명을 본다. 그만큼 그의 눈은 예리하고 예민하다. 언제 어디서건 그의 눈은 버려진 물건들로 향한다. 그리고 버려진 물건들은 절대 가공하지 않는 것이 그가 세운 중요한 원칙이다.

"처음엔 무조건 깨끗하게 하려고 폐품들을 칠하고 닦았는데, 그런 행위 자체가 환경오염이더군요. 정크아트의 본질은 버려진 모습 그대로, 낡고 더럽고 망가진 대로 작품이 되는 것이지, 예쁘게 치장하고 꾸미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크아트를 통해 자연스레 환경과 인간의 관계, 자연과 문명의 관계까지 고민하게 된다는 윤영기 씨. 그는 오늘도 버려진 것들을 찾아 쉼 없이 움직인다.



다리품만 부지런히 팔아도 무병장수한다

1분 1초가 아까운 아침, 식사 후 동료들과의 티타임, 술 한잔과 든든한 저녁, 피곤함을 조금이나 잊게 해주는 주말의 쉽과 낮잠... 걷기가 얼마나 좋은지는 알고 있지만 우리는 이런 상황에 갇혀 시간이 없다고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보자. 간단한 예로 시장을 보러갈 때 자가용을 이용하지 말고 버스 세정거장 정도의 거리라도 걸어간다. 시장을 보고난 후 짐이 있을시 택시 말고 버스를 타고 집으로 오면 의식하지 않고도 한 시간가량의 걷기운동을 한 셈이 된다. 간단한 볼일이 있어 다닐 때도 자가용이나 택시를 버리고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다니면 버스정류장까지 가는 거리, 지하철을 타러가는 거리 모두 걸어가게 된다. 동료들과의 점심식사 후 간단한 산책 등도 좋은 걷기운동이다.

걷기의 효과적인 방법 4가지

자세가 바르지 않으면 쉬이 피로해지고 온몸에 무리가 온다. 걸을 때도 마찬가지. 몸이 좌우, 상하 균형을 잃은 채 걷다 보면 일부 근육, 관절에만 집중적인 부하가 걸려 허리 등에 통증이 오는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다. 따라서 걷기 운동을 할 때는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자신의 몸 상태에 맞춰 무리하지 않게 걷는 것이 좋다.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자신의 몸 상태에 맞춰 걷기를 하는 것이다. 자신의 몸 상태를 무시하고, 마음만 앞서 무리하게 운동을 하는 것은 건강에 해가 된다. 걷기를 하고 1시간 후에 졸리고, 피곤하고, 공복감을 느끼면 몸에 무리가 된 것이므로 평소 운동량을 생각해 운동 강도를 조절한다.

둘째, 일주일에 5일 하루 30분씩 걷는다. 하루 1만보를 걸겠다는 욕심으로 무리를 하면 운동을 지속할 수 없다. 걷기는 단기간 운동으로 효과를 얻을 수 없다. 일주일에 5일, 하루 30분씩 꾸준히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셋째, 근육을 이완시킨 다음 걷기 운동을 한다. 걷기를 시작할 때는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긴장, 이완시킨 후에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평소 운동을 하지 않던 몸으로 갑자기 1시간 이상 무리하게 걷는다면 근육에 무리를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바른 자세로 걷는 것이 중요하다. 평평한 구두를 신고 걸으면 발바닥 중간 부분을 생각하고 발 앞과 뒤로만 걷기 쉽다. 그러다 보면 발목관절 사용은 줄고 허벅지 전굴근만 주로 쓰게 돼 허리가 굽는 현상을 초래한다. 또 만성적으로 근육이 뭉치는 '부목 현상'을 일으켜 통증이 생기기도 하므로 발뒤꿈치 바깥쪽으로 디디기 시작해 발바닥 중앙 바깥쪽을 거치면서 앞쪽 새끼발가락에 이어 엄지발가락 쪽으로 체중을 전달한다.

걷기시작에 앞서

신발은 바닥에 완충효과가 있는 쿠션 운동화가 좋으며 크기는 발가락을 움직여보아 잘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이 좋다. 옷은 통풍이 잘 되는 가볍고 편안한 옷이 좋는데 겨울에는 적당히 보온효과가 있는 옷을 준비하면 된다. 봄·가을에는 긴팔 옷, 여름에는 반팔, 반바지가 적당하다. 또한 걷기 전 준비운동은 필수다. 어떤 운동에서든 필요한 준비운동은 심장에서 먼 곳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포인트다. 발목을 천천히 돌려 발목 관절부위의 근육을 풀어준 다음 손목, 무릎, 팔, 허리, 목의 순서로 관절운동을 하면 되고 관절운동을 끝내고 다리, 팔, 배, 허리 등의 근육을 서서히 늘여주는 스트레칭을 하면 된다. 스트레칭에서 주의할 점은 학창시절에 배워 몸에 익은 국민체조를 하듯 절도있게 끊어지는 운동은 오히려 근육 손상의 원인이 된다. 천천히 근육을 늘여준 다음 마지막 동작에서 움직임을 멈추고 10초 정도 기다리는 것이 요령이다.

세계보건기구도 매일 30분씩 걸으면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1주일에 5일 매일 30분씩 걸으면 뇌졸중, 심근경색증을 24%나 감소된다는 연구결과도 발표했다. 누구든지 어디에서든지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걷기를 통해 조금 더 건강한 삶을 누리보자.

걷기운동의 효과

1. 면역 기능이 좋아진다.
2. 심근경색이 있더라도 더 오래산다.
3. 심장 질환의 위험이 줄어든다.
4. 체내 에너지 활용이 높아진다.
5. 산소섭취량이 늘어난다.
6. 근력이 증강된다.
7. 혈압을 정상적으로 유지시킨다.
8. 인대와 힘줄이 강하게 된다.
9. 심장의 혈액순환이 좋아진다.
10. 좋은 콜레스테롤은 증가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감소한다.
11. 동적 시력이 향상되고 녹내장이 조절된다.
12. 당뇨발생이 줄어든다.
13. 관절의 노화를 늦추어 준다.
14. 성욕, 성기능 만족도가 좋아진다.
15. 대장암, 전립선암, 유방암의 발생위험이 감소한다.
16. 뇌졸중의 발생위험이 감소한다.
17. 관상동맥질환의 발생 위험이 감소한다.
18. 요통에 도움이 된다.
19. 비만이 개선된다.
20. 심박동수가 감소한다.
21. 변비에 도움이 된다.
22. 각 장기의 혈액순환이 좋아진다.
23. 골다공증이 예방된다.
24. 작업능력이 증가된다.
25. 균형감각이 향상된다.
26. 자신감이 생긴다.
27. 수면의 질이 좋아진다.
28. 스트레스해소에 도움이 된다.
29. 금연시도에 도움이 된다.
30. 우울증, 불안감이 줄어든다.
31. 단기 기억력이 향상된다.
32. 만성두통이 사라진다.
33. 감기에 잘 걸리지 않는다.
34. 무기력해지지 않는다.
35. 삶의 질이 향상된다.

소비자 상담실

Q&A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소비자문화센터 조 희 정 과장
www.noroo.co.kr
031-467-6077
전국어디서나 1588-7700



Q. 집에 있는 아이 장식장이 너무 낡아서, 버리기는 아깝고 해서 페인트 칠을 새로하려고 할인매장에서 다용도용 수성인 멀티플러스를 구입했다. 붓으로 칠을 하려고 하는데, 붓에도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붓을 골라야 하나요?

A. 붓을 이용한 방법은 규정량의 도료를 균일하게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넓게 칠하는 방법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붓의 종류는 도료의 종류에 따라 유성용, 수성용, 바니쉬용으로 크게 구별된다. 좋은 붓은 우선 털에 광택이 있고 촉감이 좋으며 잘 꺾이지 않는다.

또한 털끝이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으며, 붓 머리 부분에 적당한 탄성이 있다.

보통 도료 종류에 따라 수성페인트는 길고 부드러운 털의 붓으로, 유성페인트는 털이 강한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붓을 선택할 때는

1. 붓의 외면은 잘 되어 있어도 내부면을 열어보아 짧게 잘린 털, 역모, 다른털 보다 굵은 잡모 등이 같이 섞여 있지 않은 것
2. 붓의 솔을 대 봐서 매끈하고, 탄력성이 풍부한 것
3. 자루에 털이 깊게 심어져 있고 조여 있는 상태가 완전하며 털이 잘 빠지지 않는 것
4. 보일우 등을 적서 흡수가 좋고, 가볍게 흔들어 보아 털끝의 갈라짐이 적은 것

Q. 니스칠을 하려고 ㈜노루페인트의 우레탄 바니쉬 DHV-6400이라는 제품을 구입했다. 물을 섞어서 사용하는 것인가, 아니면 시너를 섞어야 하나요? 종이장판위에 칠하려 하는데 손쉽게 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A. 우레탄 바니쉬는 DHV-6400 제품은 DIY용 제품으로 온돌장판이나, 마루판 등의 내, 외부 목재 면을 칠할 때 사용하는 유성제품이다. 전문가가 아닌 일반 소비자들이 손쉽게, 편하게 칠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제품이다. 우레탄 바니쉬는 DHV-6400 제품은 유성타입으로 시너를 섞을 필요가 없는 제품이다. 시너를 섞는 번거러움을 개선한 제품으로 작업성이 우수하여 구입하신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사용방법은

1. 도장할 면의 유분, 먼지, 곰팡이 등의 이물질들을 깨끗하게 제거해 주고, 부분적으로 들떠있는 곳은 샌드페이퍼나 쇠주걱으로 제거해 준다.
2. 작업할 곳의 환기를 충분히 해준다.
3. 페인트가 묻어서는 안 되는 곳은 신문지 등으로 가리고 경계부분에는 마스킹 테이프 작업을 한다.
4. 페인트는 개봉 후 잘 저어서 붓이 반 정도 담기게 담근 후 가장자리에서 가볍게 털어내어 페인트가 한 번에 너무 많이 묻지 않도록 하여 칠해준다.
5. 구석이나, 칠하기 어려운 부분은 작은 붓으로 미리 칠해준다.
6. 1차 도장 시 두껍게 도장하면 건조가 매우 느려지기 때문에 반드시 1회를 얇게 도장한 후 마른 뒤에 다시 한 번 칠하도록 한다.

사용후에는

1. 페인트칠이 끝난 후에는 먼저 붓에 묻은 페인트를 신문지등을 이용하여 털어낸 후 용제(일반 페인트용 시너)에 담가 놓았다가 세척한다.
2. 사용된 용구는 잘 건조시켜 포장하여 보관한다.
3. 페인트가 남았을 경우에는 잘 봉인한 후 직사광선을 피하고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화기를 피하여 보관하도록 한다.

사용 시 주의사항

1. 비가 오거나 습도가 높을때(상대습도 85%이상), 기온이 낮을때(5℃이하)에는 도장을 하지 않는다.
2. 직사광선을 받는 곳에서 도장할 경우 기포 발생의 우려가 있으니 주의한다.

NOROO PHOTO CONTEST

㈜노루페인트 회계팀 박지은대리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미소가 보이시나요?



㈜노루페인트 구매팀 유상민대리
날은 추웠지만 우리의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노루페인트 인사총무팀 민경남차장
우리의 열정과 포부를 기억하며..



공지사항 ※ N_POST에 원고와 사진을 받습니다. 원고와 사진을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는 소정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내실 곳은 (주)노루홀딩스 전략기획팀 장 연 언 주임 02-2191-7753 yyjang@noroo.co.kr